
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

(2023 ~ 2027)

2023. 6.



농림축산식품부
푸드테크정책과

제 4차('23~'27)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(요약)

1. 추진배경

□ 「식품산업진흥법(‘08.3월 제정)」 제4조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

○ '08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기본계획 수립(1차: '08, 2차: '12, 3차: '18)

□ 금번 제4차('23~'27) 기본계획은 코로나19로 크게 달라진 식품산업의 여건과 전망을 분석하고, 향후 5년간의 식품산업 성장전략을 제시

2. 식품산업 현황

□ **(국내)** '21년 기준, 식품산업(제조^{149조원}, 유통³⁵⁶, 외식¹⁵¹) 규모는 약 656조원 (농림업 생산액 61.4조원 대비 10.7배)으로 '18~'21년간 연평균 8.0% 성장

* '18~'21년간 산업별 평균 성장률(% , 통계청) : 소산업7.4, 식품**8.0**, 농림업5.3, 자동차4.6, 기계3.2

○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 영향('20~'21 기간 연평균 16% ↑)

* 온라인 식품 소매 비중(%): ('17) 9.9 → ('20) 20.8 → ('21) 24.3 → ('22) 27.1

□ **(세계)** '21년 기준, 세계 식품^{제조업} 규모는 8.2조 달러(약 9,840조원)로 '18~'21년간 연평균 2.1%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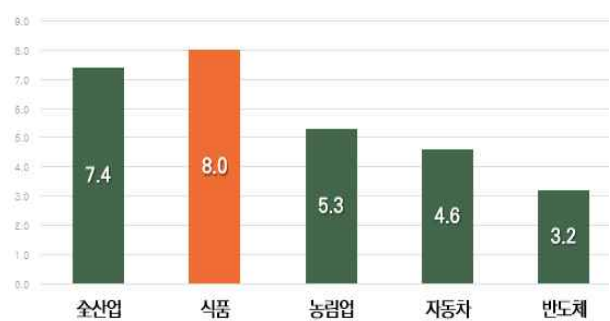
○ 중국, 미국, 일본 順으로 규모가 크며, 우리나라(1.5%)는 세계 15위 수준

< 식품산업 시장 규모('18~'21) >



* 출처: 전국사업체조사·서비스업조사(통계청)

< 타 산업 대비 연평균 성장률('18~'21) >



* 출처: 전국사업체조사·서비스업조사(통계청)

3. 국내외 식품산업 여건 및 전망

- **(국내)** 농식품 수출액 증가 추세*,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** 등 미래 新산업 영향으로 농식품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

* 농식품 수출액(억불) : ('18)69.2 → ('20)75.6 → ('21)85.3 → ('22)88.2('18~'22, 연평균 6.2%↑)

** 국내 푸드테크 시장규모(조원) : ('17) 27 → ('20) 61('17~'20, 연평균 31%↑),

국내 그린바이오 시장규모(조원) : ('17) 4.1 → ('20) 5.4('17~'20, 연평균 9.6%↑)

- 1인 가구 증가·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식품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어 간편식·메디푸드·기능성식품 등 新식품 시장 성장 전망
- 다만,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정체로 식품기업들은 수출을 통한 성장 기회 모색 및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
- 또한, 영세한 식품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최저임금 인상·인력 부족 문제 대응 및 R&D·시설 투자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도 어려움

* 최저임금: ('18) 7,530 → ('23) 9,620원, 인력부족률(22.下): 畜산업3.4, 식품제조5.7, 외식5.3

- **(해외)** K-Food가 한국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으나, 각국의 공급망 정책·식품규제 강화 등은 기업에 부담

* 한식(해외한류실태조사):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도 1위(9년연속), 한국연상 이미지 2위(5년연속)

- 세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농식품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,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도 여전
- EU·미국 등의 공급망 및 환경 관리 강화 정책*으로 식품기업에 대한 ESG 경영 도입 요구 증대

* (EU) 공급망 실사 지침('22.2월), (美)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('22.3월) 등

- 수입식품에 대한 각국의 안전 관리 강화는 무역장벽으로 작용

* (EU) 수입식품 통관 규정 강화('22.1월), (美)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 의무화('18.8월)

4. 비전 ·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

비전	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'K-Food'	
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[산업 성장] 식품산업 규모 : '21) 656 → '27) 1,100조원(연평균 9%↑) ◆ [수출 확대] K-Food 수출액 : '22) 88.2 → '27) 150억불 ◆ [농업 연계] 국산 원료 사용량: '21) 594 → '27) 800만톤 	
전략 및 과제	5대 추진전략	주요 과제
	1.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역~세계로 푸드테크 산업 확산 ▪ 그린바이오 기술의 식품 분야 적용 확대
	2. K-Food의 경쟁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K-Food 수출 확대 ▪ 국내 미식관광 활성화 및 한식 홍보 강화 ▪ 외식서비스 품질 제고
	3.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 위상 제고 ▪ 전통주 산업 도약 기반 조성 ▪ 전통 장류를 소스 산업으로 육성
	4.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농업-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▪ 국산 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	5.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식품·외식 기업의 경영 안전망 확충 ▪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 ▪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확대 ▪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
추진 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산·학·관 기능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식품산업 진흥 ◆ 식품 관련 법·제도·통계 등 인프라 강화 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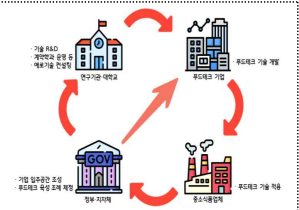
5. 기본계획 주요 내용

[전략1]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기술을 통한 식품산업의 혁신 성장 도모

- **(푸드테크)** 지역 단위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및 해외 수출 거점 조성
 - (지역 산업생태계 조성) 푸드테크를 통한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'(가칭)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*' 지정·육성('24~)
 - * '23년 중 「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정을 통해 근거 마련
 -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* 중 지역별 특화 분야 선정, 지역 내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간 공동 R&D, 기술 실증 등 네트워킹 지원
 - * ①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, ②식물기반식품 제조, ③간편식 제조, ④식품프린팅, 스마트 ⑤제조, ⑥유통, ⑦식품업사이클링, ⑧식품커스터마이징, ⑨친환경포장, ⑩식품로봇
 - 푸드테크 계약학과(석사, '22: 4개 → '27: 12)를 지방대학으로 확대하여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


< 스마트 제조공정 클러스터 조성 모델(안) >

▶ 경북 포항은 지역 내 대학(포스텍), 연구기관(로봇산업융합연구원, 수중로봇연구소 등), 기업(뉴로메카, 아워홈, 플라리스3D 등 10개소) 등이 식품제조·외식기업의 스마트 제조공정 도입을 위한 산·학·관 협력체계인 'K-키친 추진위원회' 구성('23.4)



- (해외진출 촉진) aT 해외지사 등을 활용, 주요 수출국에 기업 사무 공간·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'K-푸드테크 글로벌센터' 설치('24~)
- **(그린바이오)** 분야별 거점 중심으로 기능성식품·고령친화식품 등 新식품 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고, 분야별 육성방안 수립
 - (기능성식품) 국산 기능성 원료와 천연물 소재 정보 및 표준화 방법 등을 식품기업에 제공하여 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 지원('23~)
 - * 기능성 원료은행('24.2, 익산), 천연물 소재 허브('23~'27, 1개소), 원료소재 공급센터('24~'28, 2개소)
 - (고령친화식품)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식품 개발 연구 지원 강화,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 확대 및 우수식품 지정 활성화('23~)

[전략2] K-Food 경쟁력 강화로 '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불 달성

- **(수출)** 라면·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'K-브랜드'로 육성, 1억불 이상 수출 품목을 20개로 확대('22: 11개)
 - (유망상품 육성) 배·딸기·포도 등에 대해 수출국 선호 新품종 발굴, 마켓테스트·유통채널 입점 등 지원, K-Food 공동 로고() 활용('23~)
 - (물류·유통) 수출통합조직 중심 공동포워딩*, 저온유통체계 구축 확대('23~)
 - * 수개의 수출통합조직 공동으로 운송사와 운임 협상, 물류비 최대 30% 절감 가능
 - (新시장 개척) 최우선 전략국 선정, 현지 로컬마켓 바이어 발굴 및 기업 매칭, 바이어 초청 상담회(BKF),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확대('23~)
 - 해외 진출 식품기업 중심으로 '국가별 협의체'를 구성,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판로 공동 활용, K-Food 공동 마케팅 등 수출 확대에 협력

< 사례 : '23년 상반기 BKF(Buy Korean Food*) 성과 >

- ▶ 현지 로컬마켓에서 인지도·구매력이 높은 바이어(136개社)를 초청(미국 SAMS, UNFI 등), 농식품 수출기업(320개社)과 1:1 상담 매칭 지원으로 '22.下 대비 현장계약 실적 6.3배 증가*

* ('22.下) 10건, 3백만불 → ('23.上) 31건, 19백만불(약 250억원)



- **(한식)** 높아진 한식 인지도를 내수-관광-수출로 연결하고, 국가별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담은 「(가칭)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」 수립
 - (내수-관광 활성화) 지역별 농업자원-식품명인-향토음식-전통주 등 한식 자원을 결합한 'K-미식벨트' 조성, '글로벌 미식행사' 유치 등('24~)
 - (식재료 수출)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, 'K-Food 식재료 공급망' 구축 등('23~)
- **(외식)** '외식 서비스 등급제' 도입, 푸드테크 적용 소자본 창업 모델 개발 등으로 외식산업 활성화

[전략3] 김치·전통주·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

□ (김치)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 위상 제고

- 원료공급 단지 조성(現 2개소), 배추·무 우수 품종(5종) 개발, 김치 종균 개발(~'27, 60종)·보급을 통한 품질 제고 등 추진('23~)
- 자동화 공정 개발·보급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정밀센서를 활용한 이물질 발견 등으로 식품 안전·위생 제고('23~)
- 수출국 맞춤형 김치 제품 및 장기 유통 기술 개발,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수출 김치에 대한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(NGI) 등 검토

□ (전통주) 銘酒 육성 및 한식과 연계한 수출상품화 추진

- 자금·컨설팅·R&D 등 창업지원을 확대하고, 하이볼 레시피 등 다양한 소비 방법을 개발하여 MZ세대로 소비 기반 확대('23~)
- 주요 외교 행사에 전통주를 활용하는 '진배주 프로젝트', 도자기·병 등 고급 패키징 지원 및 해외 한식당 연계 수출 확대 추진('23~)
- 국민 정서 고려,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통주 개념·범위 및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범위 조정 등 「전통주산업법」 개정 검토

□ (장류) 발효 과학화 등을 통해 소스 산업으로 육성

- 종균 개발(~'27, 33종)·보급을 통한 발효 과학화, 전통 장류 기능성 규명 연구 추진, K-Food 소스 개발 지원('23~)

< 사례 : 소스산업화센터의 소스 개발 지원 >

- ▶ 고추장을 활용한 '닭가슴살 소스'를 개발, 식물성 대체식품 및 간편식에 활용
 - * 소스 활용 제품 매출액 : ('21) 12.9억원 → ('22) 14.5
- ▶ 간장을 활용한 '돼지갈비 소스'를 개발, 축산물 비선호 부위(뒷다리살 등)로 만든 밀키트에 활용
 - * 소스 활용 제품 매출액 : ('21) 3억원 → ('22) 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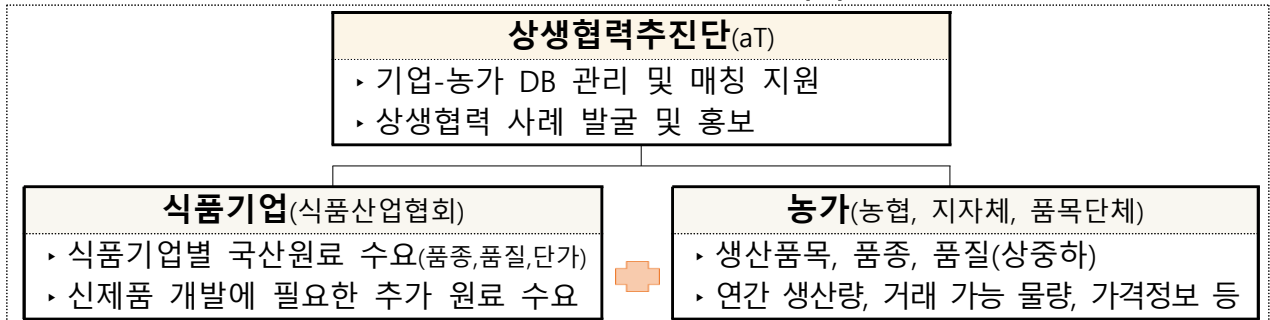


- 식품명인의 장맛 계승·발전, 내외국인 관광과 연계, '장 문화'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('23~)


[전략4] 농업-식품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

- **(상생협력)** 식품기업-농가 간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‘원료중계 플랫폼’ 구축 검토, 우수사례 발굴·정부 포상 등을 통해 확산 유도(‘24~)
 - 기업 대상 국산 원료 사용 필요성(예: ESG 기여)에 대해 적극 홍보

< ‘원료중계 플랫폼’ 구축(안)>



< 사례 : 가루쌀 사용과 ESG 경영 >

▶ 환경(E): 일반 쌀 대비 생육기간이 짧아 탄소 감축에 유리하고 건식 제분이 가능하여 물 사용 감소(습식제분: 쌀가루 1톤 생산시 물 4~5톤 사용) ▶ 사회(S): 수입 밀(연간 약 250만톤) 일부 대체 가능, 농가와 상생 가능	
--	--

- **(국산 원료 공급)**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원료 생산단지 확대, 대체식품 원료 DB를 구축하여 ‘디지털 식품 정보 플랫폼’을 통해 제공(‘23~)
 - * 밀/콩 생산단지 : (‘22) 51개소(7천ha)/122(7) → (‘27) 100(21)/220(14)
 - ** 가루쌀 생산단지 : (‘23) 38개소(2천ha) → (‘27) 200개소(42천ha)

- **(소재·반가공 산업 활성화)** 식품 소재·반가공 기업 및 APC에 대한 시설·장비 지원 강화로 국산 소재·반가공 제품 유통 활성화(‘23~)

< 사례 : ‘뜨란’의 국산 콩 활용 대체식품 소재·제품 개발 >

▶ 농업회사법인 (주)뜨란은 콩 생산단지(38ha, 140톤)를 경영하면서, 관내 콩 재배 농가 150여 곳과 계약재배(61ha, 45톤)를 통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 대원·선풍 등 국산 품종을 생산하고, 이를 활용해 식품소재 및 대체식품 개발
▶ 식물성조식단백(TVP)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체식품 소재의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으며, 자체 대체식품 브랜드 ‘미트멀리즘’ 출시 예정(‘23.下)

- **(기업 인센티브)**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, 정부 포상 등 추진(‘23~)

[전략5] ESG 등 변화된 경영 환경 대응 등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

- **(경영지원)** 인력·자금·원재료·R&D 등 중소 식품·외식기업 애로 해소
 - (인력) 식품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, 계약학과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, 청년 인턴 지원('23~)
 - * ①중소비수도권 식품제조업체 고용 한도 상향, ②신규 고용 허가 한도 폐지, ③방문취업 외국인(H-2), ④재외동포(F-4) 취업 허용업종 확대, ⑤외국인 유학생(D-2) 취업 허용 시간 연장 등
 - (자금) 원료매입·시설현대화('23, 1,446억원) 등 자금 지원 확대
 - (원재료) 「해외농업산림법」 개정('25~), 할당관세, 계약재배 등 지원('23~)
 - * (현행) 개발 대상자원이 농산물(바이오에너지 원료 포함)·축산물로 제한 → (확대) 농산물 가공품 및 식품으로 확대(예 : 식용유, 대두박 등)
 - (R&D)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新산업 육성, 식품 소재 국산화, 식품 품질·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R&D 지원 강화('23, 380억원)

< 사례 : '더플랜잇'의 식물성 유제품 XILK(셀크) >

▶ '19~'21년 동안 총 7억원의 식품 R&D 사업을 지원받아 국산콩(하영콩*)을 활용한 새로운 단백질 추출·배합 기술을 개발하여 '식물성 우유' 출시('22년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선정)

* 콩의 비린맛과 알레르기, 소화불량 물질을 제거한 신제품



- **(ESG)** EU 등의 공급망·환경 관리 정책에 대응, 식품기업 ESG 경영 지원
 - ESG 공시 의무* 대응, 'ESG 경영 가이드라인' 마련, ESG 경영 컨설팅, 식품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탄소감축 방법론 개발·교육 등 지원('23~)
 - 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(G) : ('19) 자산 2조원 이상 → ('22) 1조원 → ('24) 5,000억원 → ('26) 쉐 상장사
 - ② 지속가능경영보고서(E-S-G) : (~'24) 자율 → ('25) 자산 2조원 이상 → ('30) 쉐 상장사
- **(소비자 신뢰 제고)** 식품 생산단계별 안전관리 강화, 식품 관련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확대, 정보제공 강화 등 추진('23~)

목 차

I. 계획의 성격과 추진 경과	1
II. 국내외 식품산업 현황 및 전망	2
III. 제3차('18~'22) 기본계획 평가	11
IV.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	14
V. 세부 추진과제	16
1.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	16
2. K-Food의 경쟁력 강화	19
3.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	24
4.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	29
5.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	31
VI. 추진체계	36
붙임. 과제별 추진 일정	38

I. 계획의 성격과 추진 경과

1 계획의 성격

- 「식품산업진흥법(’08.3월 제정)」 제4조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

- ’08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기본계획 수립(1차: ’08, 2차: ’12, 3차: ’18)

< 기본계획 포함 사항(동법 제4조 제2항) >

- ▶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
- ▶ 식품산업 관련 기술 개발·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- ▶ 외식산업 육성, 전통식품의 개발·보급·세계화에 관한 사항
- ▶ 국가식품클러스터,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

- 금번 제4차(’23~’27) 기본계획은 코로나19로 크게 달라진 식품산업의 여건과 전망을 분석하고, 향후 5년간의 식품산업 성장전략을 제시

- 이번 기본계획부터 김치산업진흥법 및 전통주산업법에 따른 김치 산업과 전통주 관련 기본계획 내용도 포함

2 추진경과

- **(연구용역)**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, 제4차(’23~’27) 기본계획의 방향 및 주요 과제 발굴 등 추진

*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정책 마련(KREI), 미래 유망식품 산업 육성 연구(GS&J)

- 김치·전통주 분야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별도 추진

* 제3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, 제3차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

- **(실태조사)** 국내외 식품산업의 규모·구조·동향, 국내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 현황, 소비트렌드 변화 분석 등 실시

* 식품외식산업정보분석(aT),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(aT), 김치산업실태조사(KREI)

- **(의견수렴)** 당면과제 논의, 신규 정책 수요 발굴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(총 14회) 및 부내 협의*,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추진

* 정책조정협의회(5.3), 주요 과제 관련 실국(식량국·유통국)과 추가 논의 통해 내용 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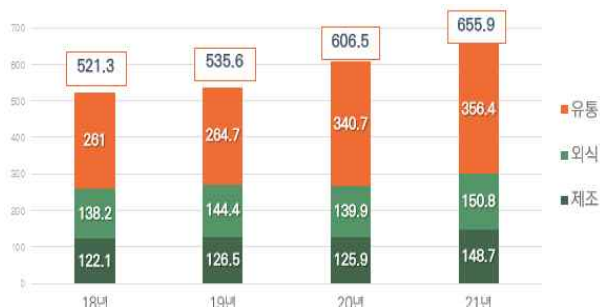
Ⅱ. 국내외 식품산업 현황 및 전망

1. 국내 식품산업 현황

1 식품산업 전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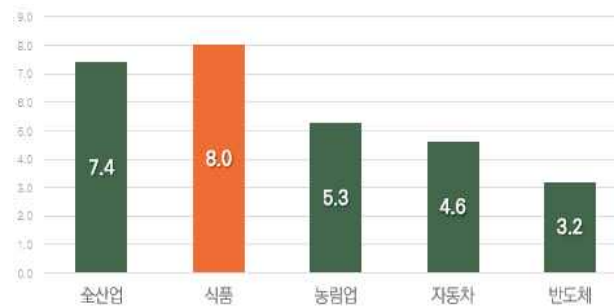
- **(산업규모)** '21년 기준, 약 656조원(제조^{149조원}, 유통³⁵⁶, 외식¹⁵¹, 농림업 생산액(61.4조원) 대비 10.7배)으로, '18~'21년간 연평균 8.0%의 성장 기록
 - * '18~'21년간 산업별 평균 성장률(% , 통계청) : **식품8.0**, 농림업5.3, 자동차4.6, 반도체3.2
- **(식품제조: 149조원)** '18~'21년간 연평균 6.8% 성장(제조업 전체 : 4.2), 제조업 전체 평균 성장률 대비 높은 성장
 - * 산업규모(조원, 통계청) : ('18) 122.1 → ('19) 126.5 → ('20) 125.9 → ('21) 148.7
 - ↳ 육류가공(18.5%), 건기식(8.6%), 유제품(7.3%), 떡·빵·과자류(7.2%), 간편식(6.5%) 順
 - 세계 식품제조 산업 규모*는 '21년 기준 8.2조 달러(약 9,840조원)로, '18~'1년간 연평균 2.1% 성장
 - * 중국(23.2%), 미국(15.9%), 일본(4.9%) 順, 우리나라(1.5%)는 세계 15위 수준
- **(식품유통: 356조원)**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유통 성장 등에 힘입어 '18~'21년간 연평균 10.9% 성장
 - * 산업규모(조원, 통계청) : ('16) 244 → ('17) 256 → ('18) 261 → ('19) 265 → ('20) 341 → ('21) 356
 - ↳ '16~'19 기간 중 연평균 2.7% 성장, '20~'21 기간 중 연평균 16.0% 성장
 - * 식품 온라인 소매 판매 비중(%) : ('17) 9.9 → ('20) 20.8 → ('21) 24.3 → ('22) 27.1
- **(외식: 151조원)** '18~'21년간 연평균 3.0% 성장, 코로나19로 '20년 시장 축소(전년비 △3.1%)되었으나, '21년부터 회복 추세(전년비 7.8%)
 - * 산업규모(조원, 통계청) : ('16) 119 → ('17) 128 → ('18) 138 → ('19) 144 → ('20) 140 → ('21) 151
 - ↳ 식품산업 '16~'19년 기간 중 성장률 : 식품산업4.3, 제조5.2, 유통2.7, 외식6.7

< 식품산업 시장 규모('18~'21) >



* 출처: 전국사업체조사·서비스업조사(통계청)

<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('18~'21) >



* 출처: 전국사업체조사·서비스업조사(통계청)

□ **(산업구조)** '21년 기준, 사업체 수 98.4만개, 종사자 수 267만명으로 '18~'21년간 각각 연평균 5.2% 증가, 1.5% 감소

○ 다만, 외식 분야 취업자 수는 '22.下부터 회복세(지역별 고용조사, '22)

* 외식업 취업자수(만명) : ('18.下)204 → ('19.下)215 → ('20.下)194 → ('21.下)197 → ('22.下)209

○ 사업체의 약 90%가 매출액 10억원 · 종사자수 4인 이하의 영세업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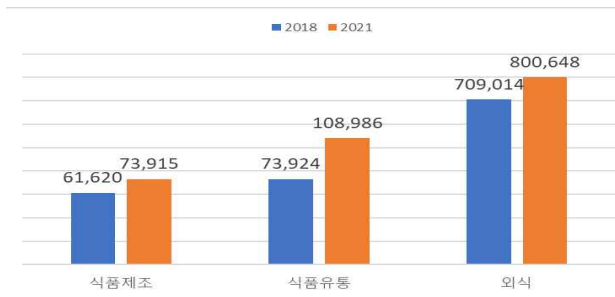
○ 타 산업 대비 상용 근로자^{1년↑} 비중은 낮고, 임시^{1년↓} · 일용직^{3월↓}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중은 높은 구조

* 상용 근로자 비중(% , '20년 기준) : 전산업75.4, 반도체96.3, 자동차94.7, 식품산업49.8

임시·일용직 근로자 비중(% , '20년 기준) : 전산업14.4, 반도체2.5, 자동차3.6, 식품산업28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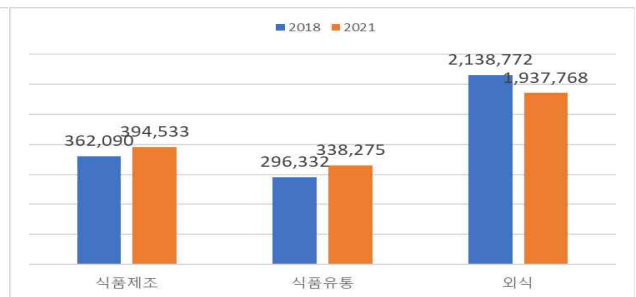
- 식품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인해 인력 부족률이 높음(全산업: 3.4%, 식품제조: 5.7%, 외식: 5.3%, 22.下 기준)

< 사업체 수 비교 >



* 출처: 전국사업체조사·서비스업조사(통계청)

< 종사자 수 비교 >



* 출처: 전국사업체조사·서비스업조사(통계청)

□ **(산업동향)** 식품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, 푸드테크 분야 스타트업 진출 가속화, 온라인 유통 성장 강화 추세

○ 식품기업들은 해외 K-Food 인기 확산에 따른 시장 선점을 목표로 현지 식품기업 인수* 등을 통한 해외투자 확대 추세

* CJ제일제당은 미국 식품기업 '슈완스' 인수('19) 후 미국 시장 매출 11배 증가('22년 기준)

○ 정부의 R&D 지원 확대로 식품분야 기술경쟁력은 강화 추세

* 기술수준(점) : ('18)79.5 → ('20)82.4 → ('22)86.3, 기술격차(년) : ('18)3.7 → ('20)3.1 → ('22)2.4

○ 쿨리 등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는 새벽배송 등으로 우위를 선점,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는 등 구조 변화 모색

○ 외식업은 코로나19로 배달 매출액이 크게 증가, 인력 수급 문제 심화로 조리로봇 · 서빙로봇 등 로봇 도입 확대 추세

* 배달앱 매출액(조원) : ('19)4 → ('22)17 / 배달앱 매출 비중(%) : ('19)3.7 → ('22)14.6

2 주요 분야 현황

① **(건강기능식품 등*: 8.6%)**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식품제조 분야 중 가장 크게 성장

* **건강기능식품**, 인삼류, 두부류, 커피·차류 및 기타 식품류 등 포함

** 식품제조업 내 비중(%) : ('18) 6.9 → ('19) 7.6 → ('20) 8.2 → ('21) 8.6

○ 건강 증진, 면역력 강화, 필수 영양성분 보충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 확대*되고 있어, 향후 성장가능성 높음

* 가구당 연평균 건강기능식품 지출액(만원) : ('18) 22.8 → ('20) 25.3 → ('22) 31.8

② **(우유 및 유제품: 7.3%)** 출산을 감소 등으로 우유 소비는 감소하나 치즈·발효유 등 유제품 소비는 증가 추세

* 합계출산율명 : ('10) 1.23 → ('18) 0.98 → ('21) 0.81, 우유 소비량(kg/인) : ('18) 27.0 → ('21) 26.5, 유제품 소비량(kg/인) : ('18) 80.1 → ('21) 86.1

** 식품제조업 내 비중(%) : ('18) 8.7 → ('19) 8.3 → ('20) 8.1 → ('21) 7.3

③ **(떡·빵·과자류: 7.2%)** MZ세대 중심 건강한 간식(예. 글루텐프리)에 대한 관심 증가, 쌀 활용 간편식 제품 확대로 떡류 중심으로 성장

* 식품제조업 내 비중(%) : ('18) 7.3 → ('19) 7.4 → ('20) 7.4 → ('21) 7.2

○ 특히, K-Food 인기 확산으로 떡·빵·과자류의 수출도 증가 추세*

* 떡·빵·과자류 수출 실적(만불) : ('18) 4,314 → ('20) 5,187 → ('22) 6,217(연평균 9.6%↑)

④ **(간편조리식품 등*: 6.5%)** 코로나19로 외식이 가정 내 소비로 전환**,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성장세

* 도시락류 제조업, 간편식(즉석섭취식품·즉석조리식품·신선편의식품·밀키트·만두류) 등

** 식품제조업 내 비중(%) : ('18) 4.8 → ('19) 5.6 → ('20) 6.4 → ('21) 6.5

식품유형별 지출 변화(%) : ('19) ^{신선}23.0/^{가공}27.9/^{외식}49.1 → ('21) ^{신선}26.5/^{가공}29.6/^{외식}43.9

○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간편식 제품이 다양화*되는 추세

* 레스토랑 간편식(RMR), 식물성 대체식품, 건강 관리 식품(저탄고지 도시락) 등

3 전통식품 현황

(1) 김치산업

□ **(산업규모)** '21년 기준, 약 5.3조원 규모, 상품 김치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, 가정·외식·급식 소비량 감소로 성장 정체 상태

* 김치 산업규모(조원) : ('18) 5.1 → ('19) 5.0 → ('20) 5.4 → ('21) 5.3
 ↳ 상품 김치(조원, 식약처) : ('18) 1.23 → ('19) 1.28 → ('20) 1.34 → ('21) 1.39
 가정·외식·급식소비(조원, 추정) : ('18) 3.9 → ('19) 3.7 → ('20) 4.1 → ('21) 3.9

□ **(산업구조)** '21년 기준, 사업체수 838개, 종사자수 1.2만명으로 '19~'21년간 각각 연평균 16.6%, 13.9% 증가

* 사업체수(개) : ('19) 616 → ('20) 635 → ('21) 838
 종사자수(명) : ('19) 9,510 → ('20) 10,103 → ('21) 12,343

○ 국내 생산 상품 김치 대부분은 국산 원료 사용('21년, 중량의 97.0%), 특히 배추는 국내 생산량의 84.8%, 건고추는 35.4%를 김치 제조에 사용

□ **(산업동향)** 국내 김치 소비량은 감소*하고 있으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상품 김치 구입은 증가**, 한류 확산 등으로 김치 수출도 증가 추세

* 연간 김치 총소비량(만톤) : ('10)201.5 → ('20)177.5, 1일/1인 평균 섭취량(g) : ('10)109.9 → ('20)88.3
 ** 상품 김치 구입 비중(%) : ('18)12.2 → ('19)15.4 → ('20)31.3 → ('21)33.1

○ 국가별 차별화된 제품으로 수출국 다변화('18, 75개 → '22, 87개) 추세

* (예시) 젓갈을 넣지 않은 비건김치(미국), 저염김치(대만)

** 주요 수출국(비중, '22년) : 일본(43.3%), 미국(20.7%), 홍콩(5.2%), 네덜란드(5.0%) 등

○ 다만, 국내 외식·급식업체는 원가 부담 등의 이유로 수입김치 사용 증가, 김치 무역수지 적자 지속('21년 중국 알몸 김치 이슈로 인한 흑자 제외)

<김치 수출입 동향>

단위 : 백만불

	'18	'19	'20	'21	'22
수출액	97	105	144	160	141
수입액	138	131	152	141	170
무역수지	△41	△26	△8	19	△29

(2) 전통주산업

- **(산업규모)** '21년 기준, 전통주 등* 시장은 1.2조원 규모로 전체 주류 시장(8.8조원)의 13.5% 차지, '18~'21년간 연평균 3.8% 성장(전체 주류 △0.8%)
 - * 탁주, 약주, 청주, 과실주, 증류식소주, 일반증류주, 리큐르, 기타주류 8개 주종
 - ** 국내 주류 시장(억원) : ('18) 90,394 → ('19) 89,413 → ('20) 87,995 → ('21) 88,345
 - 전통주 등(억원) : ('18) 10,659 → ('19) 10,276 → ('20) 10,903 → ('21) 11,924
 - 전통주(민속주+지역특산주, 억원) : ('18) 456 → ('19) 531 → ('20) 627 → ('21) 941
- 전체 주류시장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, 전통주 시장은 온라인 구매 장점과 코로나19 이후 혼술·홈술 소비 트렌드가 결합하며 지속 성장
 - 특히, 코로나19 기간 동안 젊은층의 '가심비' 소비가 더해지며, 증류식 소주·프리미엄 막걸리 등의 시장이 확대
 - * 국내 증류식 소주 시장(억원) : ('18) 333 → ('19) 384 → ('20) 448 → ('21) 646
 - 국내 탁주 시장(억원) : ('18) 4,591 → ('19) 4,430 → ('20) 4,706 → ('21) 5,098
- '22년 전통주 등 수출액은 2,467만불(약 300억원)로 전체 주류의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, 탁주('18 대비 26.3% ↑) · 과실주(118.7% ↑) 중심으로 증가
 - * 주류 수출액(억불) : ('18) 4.1 → ('19) 3.8 → ('20) 3.2 → ('21) 3.2 → ('22) 3.6
 - ↳ 주종별 수출액 증감률('18→'22, %) : (소주)△4.3, (맥주)△55.0, (전통주)39.7 ↑
- **(산업구조)** '21년 기준, 전통주 등 제조면허 수는 2,480개로 전체 주류 제조면허(2,717개)의 91.3%에 해당하며, 이 중 전통주 제조면허 수는 1,401개*
 - * 민속주 면허(개) : ('18) 64 → ('19) 55 → ('20) 54 → ('21) 52
 - 지역특산주 면허(개) : ('18) 973 → ('19) 1,108 → ('20) 1,219 → ('21) 1,349
- **(산업동향)** 증류식 소주 및 프리미엄 막걸리에 대한 청년 창업 확대 및 유명 연예인의 투자 확대는 MZ세대의 전통주 소비 붐 조성에 기여

< 사례 : 청년층의 전통주 창업('한강주조') >

- ▶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 30대 청년들이 MZ 세대를 겨냥한 '나루생막걸리*' 출시('19.6월)
- * 서울에서 생산된 '경북궁쌀'을 이용, 타 막걸리 대비 쌀 함량이 높음
- ▶ '21년 우리술 품평회 탁주 부문 대상 수상, '22년 20억 매출 달성



(3) 장류산업

- **(산업규모)** '21년 기준, 1.2조원 규모로 이 중 9.5% 수출(약 1,140억원), '18~'21년간 각각 연평균 4.7%, 13.2% 성장

* 장류 산업규모(백억원) : ('18) 104.5 → ('19) 107.2 → ('20) 116.5 → ('21) 119.9

* 장류 수출액(백만불) : ('18) 68.7 → ('19) 74.4 → ('20) 96.7 → ('21) 99.7

- **(산업구조)** '21년 기준, 사업체 수는 2,003개, 생산량은 72만톤으로 '18~'21년간 각각 연평균 0.5% 감소, 2.8% 증가

* 사업체수(개) : ('18) 2,032 → ('19) 2,047 → ('20) 2,014 → ('21) 2,003

생산량(만톤) : ('18) 66.4 → ('19) 68.5 → ('20) 68.0 → ('21) 72.2

- 생산이 가장 많은 품목은 간장(42.7%), 고추장(20.5%), 된장(16.6%) 順

- **(산업동향)** 장류산업은 간편 조리 선호, 건강 지향 소비 트렌드, 한류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로 지속 성장 중

- 김치·떡볶이 등 K-Food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 증가로 이들을 겨냥한 매운 소스 제품 개발 가속화 추세

* CJ제일제당 미국법인은 한국 전통 고추장을 재해석한 '갓추' 출시('21년)

- 특히, 히스패닉이 많은 미국에서 고추장이 인기*, 현지 유통업체들도 자체브랜드(PB)**로 고추장 제품 출시

* 기존의 칠리소스, 스리라차를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(Food Business News, 2018)

** (아마존) 키친 고추장, (타겟) 굿앤게더 고추장 바비큐소스 등

< 사례 : 떡볶이 소스 >

- ▶ '웅고집' 영농조합법인은 조리·보관·유통이 간편한 가루 형태의 떡볶이 소스를 개발, 국내 떡볶이 소스 중 최초로 할랄 인증 획득, '22.6월 인도네시아에 수출 시작



- 외식업체들도 한식 맛의 표준화 등을 위해 하나의 소스로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맞춤형 소스(예. 불고기용 소스) 선호

2. 대내외 식품산업 여건 전망

- **(국내)** 국내 식품^{제조업}은 연평균('21~'25) 5.0% 성장 전망, 1인 가구 증가·고령화 등이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
 - * 1인 가구 비중(%) : ('18) 29.3 → ('21) 33.4, 1인 가구 수(만명) : ('18) 584.9 → ('21) 716.6
 -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後 가치소비 확대 경향과 고물가로 인한 가성비 소비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소비 양극화 현상 확대
 - 중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밀키트 등 간편식 시장 더욱 확대*, 고령화에 따른 메디푸드 등의 수요 확대 전망
 - * 간편식 생산규모(조원) : ('18) 3.7 → ('19) 4.2 → ('20) 4.4 → ('21) 5.0 → ('23p) 7.0
 - 메디푸드 생산규모(백억원) : ('18) 7.7 → ('19) 7.8 → ('20) 10.7 → ('21) 15.3
 -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정체 전망으로 식품기업들은 수출 확대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거나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
 - * 2021년부터 식품수요가 감소하는 '식품절벽' 발생,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65년 인당 칼로리 섭취량은 2020년의 76.4% 수준으로 감소 예상(KREI)
- **(세계)** 세계 식품^{제조업}은 연평균('21~'25) 5.6% 성장 전망, K-Food의 위상 제고에도 불구하고, 공급망 문제·식품규제 강화 등은 기업에 부담
 - 세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
 - EU·미국 등의 공급망 및 환경 관리 강화 정책*으로 식품기업의 ESG 경영 도입이 절실하나, 기업의 인식 수준은 낮은 상황**
 - * (EU) 공급망 실사 지침('22.2월), (美)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('22.3월) 등
 - **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과 관련한 기업 설문조사(대한상의, '23.1) 결과, 원청기업 48.2%, 협력기업 47.0%가 별다른 대응조치 없다고 응답
 - 수입식품에 대한 각국의 안전 관리 강화는 무역장벽으로 작용
 - ▶ (EU) 수입식품 통관 규정 강화('22.1)로 식품안전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, 공인분석 기관 검사결과서 의무 제출 및 일정 비율(20%) 통관 의무 검사 실시해야 함
 - ▶ (미국)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('18.8 의무화)에 따라 허용치 이상의 유해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경고문 라벨 부착 및 유해 물질 명칭 기재 필요

◆ ESG란 환경(E)·사회(S)·지배구조(G)의 약자로, 기업 경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

□ (EU) EU 의회는 역내·외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인권·환경 관련 책임을 의무화하는 ‘공급망 실사 지침(‘22.2)’을 연내 표결할 계획

* EU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27개 회원국은 2년 내 관련 법률을 제·개정해야함
↳ 일부 국가(프랑스, 독일, 네덜란드 등)는 EU 의회 의결 전에 이미 법제화 추진

○ 대상기업은 자사 공급망 내 인권·환경 등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파악하여 예방·완화 조치 실시,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함

국가	법안명	주요내용
프랑스	기업 실사 의무법 (‘17년 시행) * EU 국가 중 처음으로 실사 의무화	▶ (분야) 쉐 산업 인권(S)·환경(E) 분야 ▶ (대상) 프랑스 소재 근로자 5천명 이상 기업 및 전세계 1만명 이상 고용한 프랑스 기업 ▶ (제재) 위반시, 과징금 최대 3천만 유로 부과
독일	기업 공급망 실사법 (‘23년 시행)	▶ (분야) 쉐 산업 인권(S)·환경(E) 분야 ▶ (대상) 독일 소재 근로자 3천명 이상 기업(‘24년 1천명 이상) ▶ (제재) 위반시, 과징금 800만 유로, 공공조달 참여 제한
네덜란드	아동노동 실사 의무법 (‘22년 시행)	▶ (분야) 쉐 산업 아동노동(S) 분야 ▶ (대상) 네덜란드 소재 모든 기업 ▶ (제재) 위반시, 과징금 최대 82만 유로 부과

□ (미국) ‘기후공시(E) 의무화 규정’ 마련(美 증권거래위원회, ‘22.3),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*

* (‘24) 시총 7억달러 이상 → (‘25) 0.75억달러 → (‘26) 0.75억달러 또는 매출 1억달러 이상

□ (국내) 상장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(G)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(E·S·G) 공시 의무 부여(‘21~, 금융위)

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(G) : (‘19) 자산 2조원 이상(식품기업 11개사) → (‘22) 1조원(17개사)
→ (‘24) 5,000억원(22개사) → (‘26) 모든 상장사(36개사)

② 지속가능경영보고서(E·S·G) : (~‘24) 자율 → (‘25) 자산 2조원 ↑(11개사) → (‘30) 모든 상장사



○ 협력기업에 대한 적용 범위 및 공시 항목·기준 등은 미확정 상태, 현재 기업들은 다양한 글로벌 기준*을 활용하여 ESG 자율 공시 중

* SASB(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), GRI(글로벌 지속가능보고 이니셔티브) 등

3. 해외 식품산업 정책 동향

- (EU) '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(Farm to Fork Strategy)'을 수립('20.4),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 정책 추진 중
 - 식품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행동 강령을 후속으로 발표*('21.7)하는 등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
 - * 식품 공급망 개선(온실가스 감축, 산림·토양 보존 등), 식품 생산·유통 개선(근로 여건 개선, 친환경 포장 등), 식품 생산 방식 개선(식품 손실 최소화 등) 등
 -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탄소저감, 공정무역 등 다양한 식품인증 제도 운영 중

< 사례 : ESG 관련 식품 인증 >

<p>▶ (탄소저감라벨) Carbon Trust(英)에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, 감축한 제품에 인증 부여</p> <p>* Reducing Co₂(탄소발자국 매년 감소 제품), Lower Co₂(탄소발자국이 동종 제품 평균보다 낮은 제품) 등</p>	
<p>▶ (공정무역인증) 국제공정무역기구(美)에서 제품 생산~유통 과정에서 저 개발국가 생산자를 보호하는지 판단, 인증 부여</p> <p>* 적용 품목: 커피, 코코아, 목화, 설탕, 바나나 등</p>	

- (일본) '식료·농업·농촌 기본계획'을 수립('20.3), 인구감소에 따른 식품시장 축소에 대응해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정책 추진
 - '30년까지 농수산물 수출액 5조엔(약 367억불) 달성을 목표('22, 103억불)로 해외 시장 개척, 마케팅, 품질 제고 등을 지원('23년 예산: 약 610억원)
 - '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법률' 시행('20.4)으로 '수출 추진본부*' 설치(총괄: 농림수산부 장관), 재정지원 근거 등 마련
 - 이미 '17년에 일본무역진흥기구(JETRO) 산하에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전담 기관을 설립(JFOODO, 일본식품해외진흥센터*)하여 운영 중
 - * (국내) 수출 유망품목 발굴, (해외) 해외 시장조사, 마케팅, 신규 시장 개척 등 추진

Ⅲ. 제3차('18~'22) 기본계획 평가

① '22년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액 '88.2억불' 달성, 세계 경기둔화·'24년 물류비 폐지 등에 대응한 수출 확대 전략 필요

- **(성과)**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, 농식품 수출액은 '18~'22년간 전체 산업의 수출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연평균 6%대의 높은 성장 기록
 - * 농식품 수출액(억불) : ('18)69.2 → ('20)75.6 → ('21)85.3 → ('22)88.2('18~'22, 연평균 6.2%↑)
 - ↳ 신선(억불) : ('18)12.8 → ('22)15.8(연평균 5.4%↑), 가공(억불) : ('18)56.5 → ('22)72.5(연평균 6.4%↑)
 - ** '18~'22년간 산업별 평균 수출 증가율(%) : 전체 3.1, 철강 3.6, 수송장비 3.0, 반도체 0.5, 기계류 0.5
- 수출국 다변화('18, 191 → '22, 196), 1억불 이상 수출 품목* 증가('18, 8 → '22, 11) 성과
 - * ①연초류(9.3억불), ②라면(7.6), ③음료(5.1), ④커피(3.2), ⑤인삼(2.7) ⑥쌀가공식품(1.8), ⑦설탕(1.5), ⑧반려동물사료(1.5), ⑨과자(1.4), ⑩김치(1.4), ⑪분유(1.1)
- **(과제)** 높아진 K-Food 위상이 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 악화에 대응한 K-Food만의 경쟁력 요소 발굴 필요
 - * (사례) 수출 딸기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전용 항공기(8개 노선)를 활용한 동남아 수출 확대

② 한식이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음, 높아진 한식 위상에 걸맞는 한식의 글로벌화 전략 필요

- **(성과)** 한식은 한국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, 해외 주요 미식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는 등 질적으로 성장
 - * 한식(해외한류실태조사) :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도 1위(9년연속), 한국연상 이미지 2위(5년연속)
 - ** 미쉐린 스타 한식당 : ('10) 0개소 → ('18) 19 → ('23) 27
- 「한식진흥법」 제정('19.8), 한식문화공간 '이음' 조성('22.8), 한식산업 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('22.10) 등 한식산업 발전 위한 토대 마련의 결과
- **(과제)** 국내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미식관광 활성화, 해외 프리미엄 한식문화 전파, 농식품 수출과의 연계 강화 등 추진 필요

3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성장전략 수립, 신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필요

○ (성과)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성장전략 수립*

*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('22.12.14),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('23.2.16)

< 「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」 주요내용 >

- ▶ (기업육성)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목표로 1천억 규모 푸드테크 전용펀드 조성, 정책금융 지원 확대, 식품제조 자동화 공정모델 개발, 외식업계 조라·서빙 로봇 보급 확대
- ▶ (수출확대) 푸드테크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 2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해외시장 정보제공,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, 해외 식품·IT 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 등 추진
- ▶ (기술확보)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민간 R&D 강화 및 범부처 'K-푸드테크 이니셔티브' 추진, 대학 벤처연구팀 지원 및 계약학과 확대
- ▶ (제도기반) '푸드테크 산업 육성법' 제정, 대체식품 등에 대한 표시·안전 기준 마련 등

○ (과제) 푸드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의 중소 식품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

4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 지속 확대 중,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 필요

○ (성과) 농업과 기업 간 계약재배 지원, 국산 농산물 활용 신제품 개발 지원, 전통식품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촉진

* 상생협력 참여 업체수(생산자단체+식품기업, 개) : ('18) 87 → ('20) 101 → ('22) 154

* 국산 원료 사용 비중(중량기준, %) : ('13) 31.2 → ('18) 31.3 → ('20) 31.9 → ('21) 31.7
국산 농산물 사용량(만톤) : ('13) 470 → ('18) 560 → ('20) 592 → ('21) 594

○ (과제) 지속가능한 농가와 기업 간 상생협력 틀 마련 필요

5 중소 식품·외식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속 지원 중, ESG 등 새로운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지원정책 필요

○ (성과) 코로나19, 러-우 전쟁으로 인한 인력·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응하여 식품·외식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영부담 완화 조치 추진*

*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('18년 8/108→ 9/109)·공제한도 확대('19년 5%p↑, '22년 10%p↑), 주요 원재료(식용유, 소·돼지고기 등) 할당관세 적용,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등

○ (과제) EU·미국 등의 공급망·환경 관리 강화 정책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식품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 필요

<p>* 식품산업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식품산업 발전 전략 도출</p>	<p>강점(S)</p>	<p>약점(W)</p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매출액 3조원 초과(국내 법인+해외법인) 기업 확대 ('18, 1개소 → '22, 8) 등 기업 규모화로 시장 경쟁력 제고 ▶ AI·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 높은 기술 경쟁력 ▶ K-Food의 위상 제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중 정체('21, 31.7%) ▶ 최저임금 상승·외국인력 수급 제한 등 식품업계 인력난 지속 ▶ 중소 식품·외식기업 비중 높음(약 90%) 	
<p>기회(O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세계 新식품 시장 급성장 ▶ 세계 식품시장 규모 확대 ▶ K-Food에 대한 해외 관심 지속 확대 추세 	<p><S-O 전략></p>	<p><W-O 전략></p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외연 확장 필요 ▶ 공격적인 K-Food 수출 확대 전략 수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산 원료·소재 연구개발 확대 등 新식품 분야 국산 원료 활용 확대 방안 마련 ▶ 푸드테크 등 신기술 활용으로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▶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거점 기능 강화 필요
<p>위협(T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금리·고물가 등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우려 ▶ 기후변화, 러·우 전쟁 등에 따른 식품 원자재 수급 불안 지속 ▶ EU 등의 공급망 관리 강화로 식품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 증대 ▶ 각국의 식품 안전 규제 강화 움직임 	<p><S-T 전략></p>	<p><W-T 전략></p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출 확대를 위한 K-Food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요소 발굴 ▶ 안정적인 해외 원료 공급망 구축 ▶ 실시간 해외시장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농가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확대 추진 ▶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 ▶ 식품·외식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인력·원자재 등 정책지원 강화

IV.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

- ◆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, 수출 확대, 기업의 ESG 경영지원 등을 통해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, 농업과의 동반성장도 강화

1 기본방향

1 (新산업 육성)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을 활용한 식품산업 외연 확장

- 푸드테크 핵심 기술 분야별 '(가칭)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' 육성, 그린바이오 거점 확대 등 지역 중심 新산업 생태계 조성
- 푸드테크 적용을 통한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, 새로운 상품 개발로 글로벌 식품시장을 겨냥한 수출 확대 도모

2 (K-Food 경쟁력 강화) 수출·관광과의 연계로 부가가치 확대

- 높아진 K-Food의 위상을 농식품 수출 확대로 연결하여 식품기업 및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
- 국내 한식 자원을 결합한 미식관광 상품 개발 및 'K-외식' 경쟁력 강화로 내수 및 관광 활성화 도모

3 (농업 연계)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동반성장 강화

- 식품기업-농가 간 지속가능한 계약재배 체계 구축 및 대체 식품 등 新식품 원료의 국산화 지원 기반 마련
-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전통식품(김치·장류·전통주 등) 소비 저변 확대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도모

4 (산업 성장기반 공고화) 식품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

- 중소 식품·외식 기업에 대한 인력·원재료·세제·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튼튼한 기업 경영 안전망 확충
- 미국·EU의 공급망 관리 및 환경 관리 강화 정책에 대응한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

2 비전 ·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

비전

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'K-Food'

목표

- ◆ [산업 성장] 식품산업 규모 : '21) 656 → '27) 1,100조원(연평균 9%↑)
- ◆ [수출 확대] K-Food 수출액 : '22) 88.2 → '27) 150억불
- ◆ [농업 연계] 국산 원료 사용량: '21) 594 → '27) 800만톤

전략
및
과제

5대 추진전략

1. 첨단기술을 통한
식품산업 성장 도모

2. K-Food의
경쟁력 강화

3. 전통식품
산업 활성화

4. 식품산업과
농업 간 연계 강화

5. 식품산업의
성장 기반 공고화

주요 과제

- 지역~세계로 푸드테크 산업 확산
- 그린바이오 기술의 식품 분야 적용 확대
- K-Food 수출 확대
- 국내 미식관광 활성화 및 한식 홍보 강화
- 외식서비스 품질 제고
-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 위상 제고
- 전통주 산업 도약 기반 조성
- 전통 장류를 소스 산업으로 육성
- 농업-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
- 국산 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- 식품·외식 기업의 경영 안전망 확충
-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
-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확대
-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

추진
체계

- ◆ 산·학·관 기능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식품산업 진흥
- ◆ 식품 관련 법·제도·통계 등 인프라 강화

V. 세부 추진과제

1 |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

1-1. 지역~세계로 푸드테크 산업 확산

◆ 지역 단위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및 해외 진출 거점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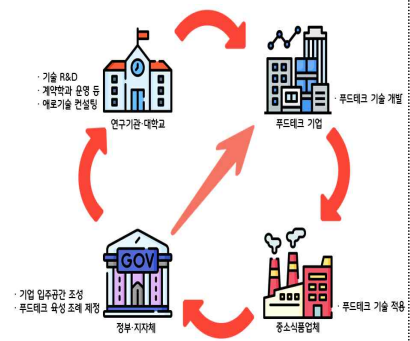
*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'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' 육성

- **(지역 산업생태계 조성)** 푸드테크를 통한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 '(가칭)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*' 지정·육성('24~)
 - * '23년 중 「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정을 통해 근거 마련
- '27년까지 스마트 제조·대체식품 2개 분야 우선 선정, '32년까지 10대 핵심기술* 쏠 분야로 확대 추진
 - * ①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, ②식물기반식품 제조, ③간편식 제조, ④식품프린팅, 스마트 ⑤제조, ⑥유통, ⑦식품업사이클링, ⑧식품커스터마이징, ⑨친환경포장, ⑩식품로봇
-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중 지역별 특화 분야 선정, 지역 내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간 공동 R&D,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
- 푸드테크 기업 입주 공간, 신기술 실증 연구, 시설·장비 공동 활용 등 지원
- 지자체는 클러스터 육성 조례 제정, 푸드테크 기업 유치 등 추진

< '스마트 제조공정' 클러스터 조성(사례: 경북 '포항') >

▶ 경북 포항은 'K-키친 프로젝트' 추진 중

- **지자체:** 식품로봇 등 푸드테크 기업 10개소 투자유치
- **지역 대학·연구기관**(포스텍·로봇산업융합연구원 등): 관내 식품 제조·외식기업에 적용할 스마트 제조공정 공동연구
- **포스텍:**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, 푸드테크 기업 및 관내 식품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



- **푸드테크 계약학과**(석사, '22: 4개 → '27: 12)를 지방대학으로 확대하여 클러스터 지원
 - 청년농도 푸드테크 기술을 농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대학에 푸드테크 교육과정 신규 개설('24~)
- **(해외진출 촉진)** '27년까지 푸드테크 수출액 20억불 달성 위해 주요국에 'K-푸드테크 글로벌센터' 설치 등 추진
 - aT 해외지사 활용하여 'K-푸드테크 글로벌센터'를 설치하고, 중진공 '글로벌비즈니스센터'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('24~, 중기부 협조)
 - 그린바이오 등 타 농식품 분야 수출 희망 기업들도 공동 활용토록 하고, 진출 국가별 법률·회계·마케팅 등 컨설팅도 연계 지원
 - 미국·EU 등 주요국 시장동향 및 첨가물 등 각종 식품규제 관련 정보제공, 인증 비용·박람회 참가 등 종합 지원('23~)
- **(혁신기업 육성)** '27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위해 자금, R&D, 판로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추진
 - (자금) '27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 조성*, 범부처 정책금융 및 UAE 국부펀드, 혁신성장 펀드, 정책자금 등 적극 활용('23~)
 - * 조성목표(억원) : ('23) 100 → ('24) 200 → ('25) 200 → ('26) 250 → ('27) 250
 - (R&D)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 성장단계별 R&D 지원('23~) 및 범부처 R&D인 'K-푸드테크 이니셔티브' 추진 검토('25~)
 - (판로) 대형유통업체 입점, 품목별 자동화 표준모델 개발 등을 통한 식품제조·외식업체 자동화 공정·로봇 도입 지원 검토('23~)

1-2. 그린바이오 기술의 식품 분야 적용 확대

◆ 분야별 거점 등 중심 新식품 소재 발굴~제품화까지 숲 주기 지원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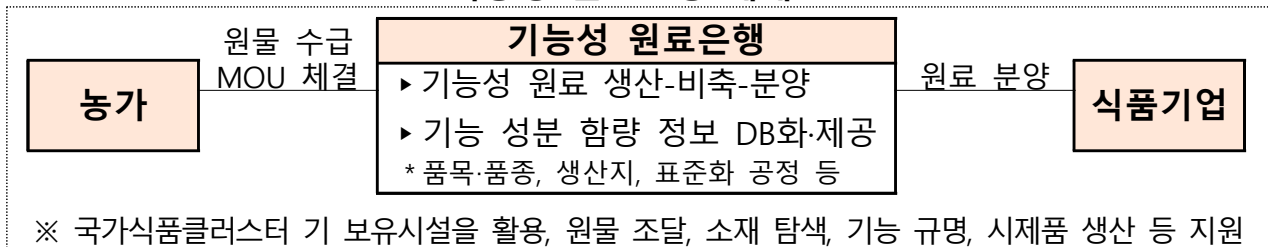
* 기능성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산업 규모 : ('20) 0.7조원 → ('27) 1.3조원

□ (기능성식품) 기능성 및 천연물 소재를 식품기업에 제공, 관련 시장 활성화

○ (기능성 원료) '기능성 원료은행'('24.2월 완공, 국가식품클러스터)을 통해 국산 기능성 원료 정보제공 및 분양, 제품화 등 지원('23~)

* 국산 기능성 원료 DB(누적, 품목수) : ('22) 4 → ('23) 8 → ('27) 30

< 기능성 원료은행 체계도 >



○ (천연물) 천연물 소재 허브('23~'27, 1개소), 원료·소재 공급센터* ('24~'28, 2개소)를 통해 천연물 소재 발굴 및 대량공급 체계 구축

* 식품기업이 스마트팜에 투자하여 원료 작물 생산 농가에 분양하는 체계 검토

□ (고령친화식품 등) 환자 맞춤형·고령자용 식품 개발 지원 강화

○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식품 개발 연구지원 강화('23~)

< 사례 : 감귤 부산물 활용 면역 활성 제품 개발 >

- ▶ (주)비케이바이오에 '16~'18년간 총 7.8억원 식품 R&D 사업 지원
- ▶ 감귤 껍질에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 전환 기술을 적용하여 다당체의 환자 면역력 향상 물질 개발
- ▶ 14개 제품 출시, 특허 6건 등록, 매출 15.1억원 달성('22)



○ 고령친화식품 효능 검증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실증사업* 확대, '고령친화우수식품' 지정 활성화('23: 122제품 → '27: 700)

* 고령친화우수제품 활용 식단 제공 후 건강지표 분석('22: 전북 전주 → '23: 서울 서초, 충남 태안)

□ (新식품 소재)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물·미생물·곤충 등 다양한 新식품 소재 발굴·상품화 지원


□ (분야별 대책 수립) 그린바이오 기술을 식품 분야에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 기능성식품 등 분야별 육성방안 수립('24~)

2-1. K-Food 수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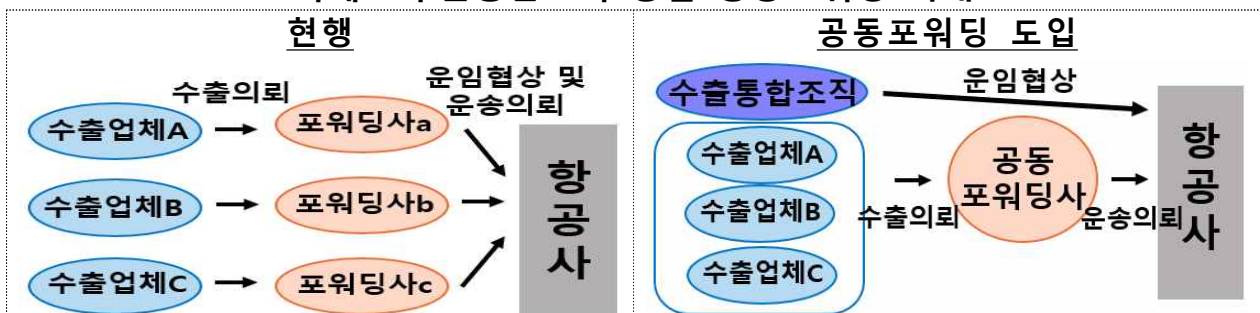
◆ '27년까지 농식품 수출액 150억불 달성

* 농식품 수출액 : ('22) 88.2억불 → ('23) 100억불 → ('27) 150억불

* 1억불 이상 수출 품목 : ('22) 11개 → ('27) 20개

- **(유망상품 육성)** 배·라면 등 수출 유망상품을 'K-브랜드'로 육성
 - (신상품 발굴) 베트남·홍콩 등 우리 농산물 선호가 높은 국가별로 수출 유망품종*을 발굴·개발하여 농가에 보급('23~)
 - * 예: (배) 슈퍼골드, 신화, 창조, (딸기) 비타베리, 하이베리, (포도) 홍주씨들리스 등
 - (상품화 지원) 수출국별 마켓테스트, 포장 개선, 유통채널 입점 등 패키지 지원* 강화('23~)
 - * 해외시장조사, 포장디자인 개발, 온오프라인 판촉, 해외인증 등록, 샘플 통관운송 등 총 20개
 - 인삼·김치 등은 현지 기능성 표시 등록, 쌀가공식품은 글루텐프리 인증 확대 등을 통해 프리미엄 상품으로 수출토록 지원
 - (K-Food 로고 사용) 타국 유사제품에 대응, 배·딸기·고추장 등에 대해서는 K-Food 공동 로고() 활용으로 차별성 확보
- **(품질 제고)** 유망품목에 대한 저온 물류·유통체계 확충 등 지원
 - (물류)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공동 마케팅 법인인 '수출통합조직'을 확대*('22: 10개 → '27: 20)하고, 이들 중심으로 공동포워딩** 추진('23~)
 - * ('22) 딸기, 파프리카, 버섯, 포도, 배, 감귤, 키위 등 10개 → ('23~) 사과, 배추 등 추가
 - ** 수개의 수출통합조직 공동으로 운송사와 운임 협상, 물류비 최대 30% 절감 가능

< 사례 : 수출통합조직 중심 공동포워딩 확대 >



- (유통) 입학~최종 소비지까지 **저온유통체계**(콜드체인 등) 구축 확대, 선박 운송이 많은 배·토마토 등에 **CA컨테이너 기술*** 적용 확대('23~)

* 대기 환경 조절을 통해 농산물 호흡·미생물 생장 등을 억제하여 농산물 선도 유지

- **(신규시장 개척)** 최우선 전략국*(8개국) 및 주요 수출국에 대한 로컬·온라인 마켓 등 신규 바이어 발굴, 수출기업 매칭 등 추진

* 수출 확대 가능성, 현지 여건, 한류 영향 등을 고려(독일, 영국, 캐나다, 멕시코, 호주 등)

- 국제 식품박람회 등 참가('23, 24회), 바이어 초청 상담회('23, 2회) 및 K-Food Fair 개최('23, 7회), 안테나숍* 증설 등을 통해 거래선 확대

* 농식품 수출이 적은 지역에서 농식품 판매 및 현지 수요에 맞는 품목 발굴 위해 추진

- 시장개척요원(110명/年)을 통해 시장조사 등 신규시장 진출 여건 조성('23~)

< 사례 : '23년 상반기 BKF(Buy Korean Food*) 성과 >

- ▶ 현지 로컬마켓에서 인지도·구매력이 높은 바이어(136개社)를 초청(美 SAMS, UNFI 등), 농식품 수출기업(320개社)과 1:1 상담 매칭 지원으로 '22.下 대비 현장계약 실적 6.3배 증가*

* ('22.下) 10건, 3백만불 → ('23.上) 31건, 19백만불(약 250억원)



- 주요 수출국 온라인몰에 '한국식품관' 확대('22: 11개소 → '23: 15), 대규모 한류 행사(KCON 등) 및 한류 드라마와 연계한 홍보 강화(문체부 협업)

- 해외 진출 식품기업 중심으로 '국가별 협의체'를 구성,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판로 공동 활용, K-Food 공동 마케팅 등 수출 확대에 협력

- 검역·통관·라벨링 등에 대한 현지 법률자문('23: 36개국·117개 기관) 및 유기농·할랄·코셔 등 국가별 인증 지원(20백만원/건)

- **(자금지원)** 수출보험, 원료매입 등 기업 필요 자금지원 확대

- 범부처 정책금융, 혁신성장 펀드, 농식품 수출 전용 펀드(200억원) 등을 활용,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 적기 공급('23~)

- 수출기업 대상 원료매입·시설 현대화 등 지원 확대('23, 4,584억원)

* 수출실적, 국산 농산물 사용실적 등을 평가, 우수기업에 금리 인하 인센티브 제공(△2%p~△3%p)

-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한 수출보험 지원 확대('22: 8천 → '23: 1억원)

2-2. 국내 미식관광 활성화 및 한식의 우수성 홍보 강화

◆ 외국인의 한식 인지도 제고: ('22) 57.6% → ('27) 70%

□ (국내) '27년까지 'K-미식벨트' 15개 조성 등을 통해 미식관광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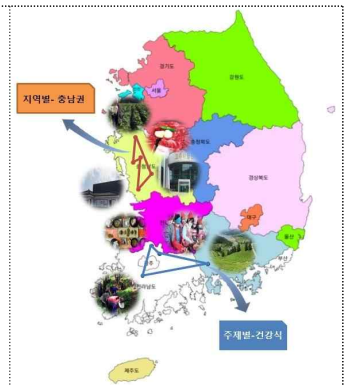
○ (K-미식벨트) 지역별 농업자원-식품명인-향토음식-전통주 등 한식 자원을 결합하여 미식관광 상품* 으로 개발('23~)

* 한식문화공간(서울), 김치타운(광주), 찾아가는 양조장(전국 50개소), 대한민국식품명인(81명) 등을 활용, ▲김치 ▲전통주 ▲장류 ▲지역 특산물 등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

- 민간여행사에 정보제공, 지자체를 통해 K-미식벨트 품질 관리 추진

< 'K-미식벨트' 예시 >

- ▶ (지역별-충남권) 배추밭 경관(당진) - 토굴 새우젓 박물관(광천)
 - K-바베큐 체험(홍성) - 고추박물관 관람, 김치담그기 체험(청양)
 - 한산 소곡주 시음 및 제조 체험(서천)
- ▶ (주제별-건강식) 장담그기 체험(전남 담양) - 녹차밭 관람, 다도체험(경남 하동) - 봄나물 수확 체험, 팜스테이(전북 남원)
 - 사찰음식 및 템플스테이 체험(전남 장성 백양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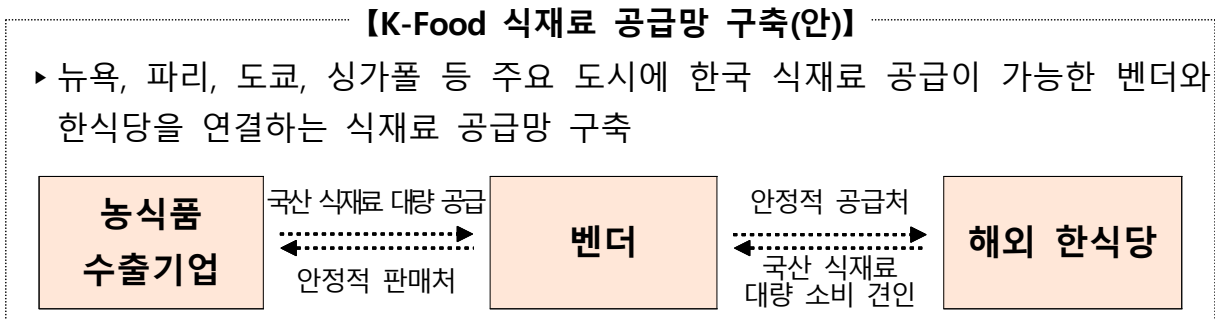
○ (지원체계) 한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, 한식 해설사 양성 등 추진('23~)

- K-콘텐츠와 연계된 메뉴*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, 한식문화공간 '이음' 內 쿠킹 클래스 운영 및 한국 식예절 강의 확대 등

* 영화 '기생충'의 채끝살 짜장라면, 드라마 '이상한 변호사 우영우'의 김밥 등

- 식품 관련 대학에 한식문화 교육과 외국어교육 등을 지원하여 한식 전문 해설사를 양성, 외국인 미식 관광 활성화 지원

- **(해외)** 우수 한식당 지정을 확대하여 한식의 고품격 이미지 확산, 한식 산업 성장이 식재료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
 - (우수 한식당) 세계 주요 도시 중심 우수 한식당 지정 확대('23: 8개 → '27: 80), 도시별 'Flavors of K-Food' 발간 및 홍보('26~, 관광공사 협조)
 - (식재료 수출) 한식당이 많이 분포된 도시 중심으로 수출기업-현지 바이어-한식당을 연결하는 'K-Food 식재료 공급망' 구축('24~)
 - aT 해외지사는 농식품 수출기업과 현지 바이어 정보를 한식당에 제공, 한식당은 한식당 협의체를 통해 식재료 수주물량 규모화·공동구매 추진
 - 소스산업화센터(국가식품클러스터 內)를 통해 외국인 선호 한식메뉴에 대한 소스 레시피를 개발하여 식품기업에 제공, 수출 품목으로 육성('23~)



- **(홍보전략)** 스타셰프를 통해 한식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, K-콘텐츠와 연계하여 국가별·세대별로 차별화된 한식 홍보 추진
 - 수출 전략품목별로 스타셰프를 매칭하여 한식 홍보를 추진, 전세계 한식 미쉐린 스타셰프(27명)를 활용하여 '글로벌 미식행사*' 유치 추진('24~)
 - * 예: ('24)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, ('26)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
 - 높아진 한식 위상에 걸맞는 국가별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 등을 담은 「(가칭)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」 수립('23)

2-3. 외식서비스 품질 제고

◆ 외식서비스 등급제 도입, 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한 경영모델 확산

* 매출 1조 이상 외식기업 ('22) 2개소 → ('27) 5개소

□ (국내) 서비스 품질 제고, 푸드테크 적용 등을 통한 외식 경쟁력 강화

○ (서비스 품질 제고) 위생평가 중심의 안심식당 제도를 음식 품질 · 고객 서비스 평가 중심의 '서비스 등급제'로 개편('24~)

* 메뉴 품질·독창성, 고객 서비스, 청결, 편의시설, 안전시설, 국산 원료 사용 등을 평가

- 최우수 등급을 받은 외식업체에는 정책자금(시설 현대화, 원료매입, 경영 컨설팅) 우선지원, 지도 앱(네이버 협업)과 연계한 홍보 집중 지원

○ (푸드테크 적용) 식품로봇 등을 활용한 푸드테크 창업모델 개발*로 소자본 창업 활성화, 공유주방·푸드코트 등 창업 공간 지원 확대('23~)

* 경영·조리·서비스 등에서 표준화가 가능한 신규 프랜차이즈 등에 우선 적용

- 외식업체 인력난 완화를 위해 자동 주문·결제 시스템, 서빙·조리 로봇 등 지원 강화

< 사례 : 외식업계 푸드테크 도입 확산 >

▶ 코로나19 이후 외식업 인력난 가중으로 로봇 도입 확대 추세

▶ 소상공인에게 무인 키오스크, 서빙·조리 로봇 등 지원 중 ('20년~, 예산 313억원(국비 70% / 자부담 30%), 중기부)

* 키오스크 등 저가 장비 : 최대 5백만원,
조리·서빙로봇 등 고가장비 : 최대 15백만원



□ (해외) 외식기업 해외 진출 촉진 위해 해외 시장 정보제공·자금지원 강화

○ (자금지원) 해외 진출 기업에 메뉴개발, 마켓테스트, 식재료 조달,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'해외 진출 바우처' 지원 강화('23: 10개소)

○ (정보제공) K-Food 인기가 높은 미국·아세안 중심으로 선호메뉴, 노동·회계·건축 등의 법률정보, 식재료 조달 방안 등 정보제공('23~)

□ (추진체계) 산·학·관 '외식산업 발전포럼'을 통해 외식 분야 현안 과제 발굴, 개선방안 논의 활성화

3-1.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 위상 제고

◆ 김치를 세계인의 건강 발효식품으로 육성

* 김치 수출액 : ('22) 1.4억불 → ('27) 3.0억불

* 우수 김치 종균 개발(누계) : ('22) 27종 → ('27) 60종

□ (원료조달) 고품질 김치 원료의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

○ 저온저장기능 등을 갖춘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('23~)

* 현재 전남 해남, 충북 괴산 2개소 추진 중('22~'25)

- 중소 영세업체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공공형 모델로 운영

○ '27년까지 기후변화에 영향이 적은 배추·무 우수 품종 5개 추가 개발

* 내재해성·내병성 배추·무 개발 품종 : ('12~'22, 누적) 10개 → ('25) 12 → ('27) 15

□ (생산성 제고) 업체 규모별 김치 생산 자동화 공정 모델 개발, 절임염수 재처리 설비 등 개발·보급으로 생산원가 절감 도모*

* 김치 생산원가 : (현재) 3,152원/kg → (자동화 도입시) 2,184원(968원/kg↓, △30%)

○ 정밀센서를 활용한 이물질 사전 차단 기술 개발·보급으로 식품 위생 및 안전 제고

□ (발효의 과학화) 김치 종균 개발 및 보급 확대로 품질 제고

○ '27년까지 김치 종균 60종('22: 27종) 개발, 중소기업 수출김치의 90%('22: 18.4%)까지 종균 보급 확대, 품질예측 AI 알고리즘 개발

□ (수출 경쟁력 제고) 수출국 맞춤형 김치 제품 및 장기 유통기술을 개발하고, 종주국으로서의 인지도 제고 위한 홍보 강화

○ (현지화) 일본 대상 기능성 표시 제품개발 확대(現, 14종 → '27, 39), 미국은 비건김치, 대만은 저염김치로 시장 공략('23~'27)

- (장기 유통기술) 수출 김치 숙성 지연을 위한 장기유통 기술 개발 및 과냉각 저장고를 활용한 유통 표준 시스템 개발(~'27)
- (중주국 위상 제고) 해외 '김치의 날' 제정 확대('22: 美 8개 지역* → '27: 15), K-콘텐츠를 활용한 김치 문화 홍보 강화

* 美 캘리포니아, 버지니아, 뉴욕, 워싱턴 D.C., 텍사스, 조지아, 미시간, 메릴랜드

□ (소비기반 확대) 미래 세대를 겨냥한 교육·체험 기회 확대

- 식품명인 교육 영상과 교육용 김치 밀키트를 활용한 학생 대상 체험교육 강화, 급식용 김치 레시피 개발·보급* 확대('23~)

* 레시피 개발 후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에 게시하여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 활용 유도

< 사례 : 미래 세대 대상 김치 교육 >

▶ 지자체·김치업체·김치협회가 협업, 학생 등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김치교실('22, 49회)'을 운영하여 김치 문화를 적극 홍보



□ (제도개선) 국산 김치의 위생·품질·경쟁력 제고 위한 제도개선 추진

- (HACCP 확대) 수입 김치와의 차별화를 위해 모든 국산 김치류 대상 HACCP 적용* 을 위한 컨설팅 지원 추진('25~)

* 현재 배추김치에만 적용(국산: '14.12월 의무화 / 수입: '21.10~'24.10월까지 단계적 적용)

- (품질 표시제) 전통식품 및 KS 김치규격에서 매운맛 표시기준 개정 추진('24~), 배추김치 영양성분(나트륨·열량 등) 표시제도 단계적 확대*

* ('22) 연매출액 300억원 이상 → ('24) 50억원 이상 → ('26~) 전체

- (수출지원) 농업계·김치업계·소비자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, 수출 김치에 대해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*(NGI) 등 다양한 지원 제도 검토('23~)

*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: 국내 생산 주원료(배추, 무 등)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김치를 대상으로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라 국가에서 인증

3-2. 전통주 산업 도약 기반 조성

◆ 銘酒 육성 및 한식과 연계한 수출 상품화

* 전통주류 매출액 : ('21) 1.2조원 → ('27) 2.0조원

* 전통주류 수출액 : ('22) 23.7백만불 → ('27) 50백만불

□ (산업 성장지원) 명주 개발을 위한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조성

○ (자금) '27년까지 400억원 목표로 전용 펀드 조성, 500억원 규모 저리융자 자금 집중 지원으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('24~)

○ (창업교육) 전통주 교육기관*을 '창업지원센터'로 지정, 술 제조법·주류제조면허 취득 절차 등의 정보제공·교육 지원('24~)

* 한국식품연구원, 서울벤처정보대학교, 신라대학교, 대경대학교, 한국가양주연구소

○ (컨설팅) 제품개발, 브랜딩, 세무·회계, 홍보·마케팅, 판매 등 창업 후 소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확대('24~)

○ (R&D) 프리미엄 전통주 개발을 위한 제조 단계별 연구개발 강화('23~)

* (원료) 누룩 균 배양기술, (발효·숙성) 한국식 오크통 개발 및 숙성 기술 연구, 증류주 장기 숙성기술, (유통) 후발효 억제 등 생막걸리 유통기술 등

○ (판로) '전통주 마시는주(Week)' 기획을 통한 대대적 판촉, 전통주 갤러리를 통한 지역양조장 홍보 등 추진('23~)

□ (국내 소비확대) '전통주 등'을 지역 문화·관광상품으로 육성

○ 산·관·학 협력체계 구축, 막걸리의 문화적 가치 연구 등을 통해 '막걸리 빛기'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('24~)


○ '27년까지 '찾아가는 양조장'을 전체 전통주 양조장의 10% 수준으로 확대('22: 50개소 → '27: 75)하여 지역 관광명소로 육성

○ 지자체와 협력, 전통주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 유도

*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플랫폼에 총 54개 지역 대표 전통주가 답례품으로 게시 중

- 전통주를 사용한 하이블 레시피 개발 등 MZ세대의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주 소비 방법 개발 및 홍보('23~)


< 사례 : 전통주 활용 칵테일 레시피 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가자격시험인 '조주기능사' 실기시험에 전통주 칵테일 레시피 5개 포함(안동소주, 진도홍주, 감홍로 등 활용) ▶ 코리안컵 칵테일 대회, 대한민국 식품명인주 칵테일 경연대회 등 전통주 칵테일 대회를 통해 다양한 레시피 개발·홍보 	
--	---

□ (수출 활성화) 프리미엄화, 한식과의 연계를 통해 전통주 수출 확대

- 재외공관, 해외 문화홍보원 등 주요 외교 행사에 전통주를 활용하는 '건배주 프로젝트' 추진('23~, 외교부 협조)
 - * '건배주 가이드북'을 제작, 세계 주류품평회 수상酒 및 한식과의 페어링 정보 등 제공
- 도자기·병 등 고급 패키징 지원 및 해외 한식당 연계 판로 개척('23~)
 - * (사례) 뉴욕 소재 '서울살롱' 레스토랑에서 한식과 전통주 칵테일 등 판매
- 전통주와 어울리는 한식으로 '해외 한식 요리경연대회(12개국)'를 개최하여 우리술에 대한 해외 인지도 확산('23~)
- '전통주 갤러리'를 모델로 해외 상설 체험장 조성 검토('23~)
 - * '23년 일본 시범사업 후 미국·태국·베트남 등으로 확대 예정('24, 2개소 → '27, 5)

< 사례 : 전통주 갤러리 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음(외국인 대상 2회/日) 및 체험, 전시(전통주 품평회 수상작, 찾아가는 양조장 제품 등 300여 점), 창업 희망자 대상 컨설팅 실시 ▶ 연평균 1.4만명 방문으로 한국의 술 문화와 다양한 전통주 홍보 	
--	---

□ (제도 정비)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「전통주산업법」 개정 검토

- (전통주)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, 국민 정서 등을 종합 고려, 전통주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개념 및 범위 재설정 검토
- (지역특산주) 지역특산주 산업 육성을 위해 주원료 外 원료 조달 범위 및 지역특산주 범위 설정 등 필요한 과제 검토

3-3. 전통 장류를 소스 산업으로 육성

◆ 발효의 과학화, 문화적 가치 확산 등을 통해 전통 장류의 산업화 촉진

* '27년까지 전통 장류에 기반한 한식 소스 165개 제품 개발

- **(장류의 산업화)** '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'(순창)를 통해 '27년까지 우수 종균 33종(22: 16종)을 개발·보급하여 전통 장류의 산업화 지원
 - 우수 종균을 받은 중소 장류업체 대상 발효기술 컨설팅, 제품 품질 분석 등을 지원하여 제품의 경쟁력 제고
 - 전통 장류의 기능성 규명 연구* 등을 통해 장류 소비시장 확대
 - * 전통 장류 섭취에 따른 장 건강 개선 및 항비만·항염증 등 효과 규명
- **(소스 산업과 연계)** '소스산업화센터'(익산)를 통해 전통 장류를 활용한 한식 소스 개발, 시제품 생산 등 지원
 - 국가별 우리나라 전통 장류의 맛(짠맛·매운맛 등)·향 등에 대한 선호도·민감도를 조사하여 식품기업에 제공('24~)

< 사례 : 소스산업화센터의 소스 개발 지원 >

- ▶ 고추장을 활용한 '닭가슴살 소스'를 개발, 식물성 대체식품 및 간편식에 활용
 - * 소스 활용 제품 매출액 : ('21) 12.9억원 → ('22) 14.5
- ▶ 간장을 활용한 '돼지갈비 소스'를 개발, 축산물 비선호 부위(뒷다리살 등)로 만든 밀키트에 활용
 - * 소스 활용 제품 매출액 : ('21) 3억원 → ('22) 20



- **(문화적 가치 확산)** 식품명인의 장맛을 계승·발전시키고, 내외국인 관광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장문화가 K-Food의 근원임을 적극 홍보
 - 식품명인(13명)의 장류 제조법을 DB화하여, 전수자를 육성('23, 8억원)
 - 지역별 '장 문화 지도'를 제작, K-미식벨트와 연계하여 관광상품화
 - 한식문화공간 '이음' 내 '식품명인체험홍보관' 운영으로 내·외국인 대상 장류 문화 체험 기회 제공 확대
 - '장 문화'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('23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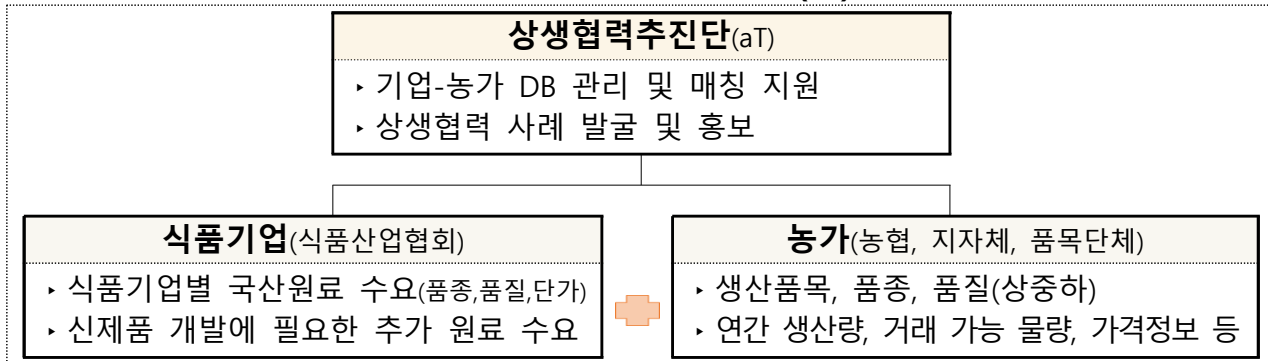
4

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

◆ 농업-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

□ (상생협력 강화) 식품기업과 농가 간 '원료 중계 플랫폼' 구축 검토

< '원료중계 플랫폼' 구축(안) >



○ (수요 DB) 식품산업협회 주관으로 식품기업 대상 국산 원료 수요를 파악하여 DB화(물량, 가격, 사용시기, 품질 요구사항 등)

- 기업 대상 국산 원료 사용 필요성(예: ESG 기여)에 대해 적극 홍보

< 사례 : 가루쌀 사용과 ESG 경영 >

- ▶ 환경(E): 일반 쌀 대비 생육기간이 짧아 탄소 감축에 유리하고 건식 제분이 가능하여 물 사용 감소(습식제분: 쌀가루 1톤 생산시 물 4~5톤 사용)
- ▶ 사회(S): 수입 밀(연간 약 250만톤) 일부 대체 가능, 농가와 상생 가능



○ (공급 DB) 농협·지자체 중심으로 계약재배 희망 농업법인, 품목 등(품종, 가격, 출하시기 등)의 정보 DB화

- 식품기업-농가 간 장기(예. 2년 이상) 계약재배 시 가격 변동성에 따른 농가의 손실 일부 보전 검토, 계약의 지속가능성 제고

*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김치에 우선 적용하고, 타 품목으로 확산 검토

○ (중계 기능) aT에 '상생협력추진단'을 구성하여 식품기업과 농가 간 계약재배 매칭 지원, 우수 사례 발굴·홍보 등 추진

□ **(국산 원료 공급)**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생산단지 조성 확대

- (밀·콩·가루쌀) 전략작물직불제('23~, 최대 250만원/ha)를 통해 생산단지 조성 확대, 대두 등 총 30종의 대체식품 원료 DB 구축·제공(~'27)

* 밀/콩 생산단지 : ('22) 51개소(7천ha)/122(7) → ('27) 100(21)/220(14)

** 가루쌀 생산단지 : ('23) 38개소(2천ha) → ('27) 200개소(42천ha)

- (감자) 식품기업과 계약재배하는 우수 감자 생산단지에 '23년부터 시설·장비 지원, 가공용 우량종자 보급 확대 등 추진

□ **(소재·반가공 산업 활성화)** 식품 소재·반가공 기업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(APC)를 활용한 국산 소재·반가공 제품 유통 활성화

- 식품소재·반가공 기업에 시설·장비 지원을 강화('23, 25.2억원)하고, 농가와 소재 기업,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시 사업평가에서 가점 부여
- 산지유통센터에 전처리 시설 등 지원 강화, 식품기업과의 거래 활성화 유도

< 사례 : '뜨란'의 국산 콩 활용 대체식품 소재·제품 개발 >

- ▶ 농업회사법인 (주)뜨란은 콩 생산단지(38ha, 140톤)를 경영하면서, 관내 콩 재배 농가 150여 곳과 계약재배(61ha, 45톤)를 통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 대원·선풍 등 국산 품종을 생산하고, 이를 활용해 식품소재 및 대체식품 개발
- ▶ 식물성조직단백(TVP)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체식품 소재의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으며, 자체 대체식품 브랜드 '미트멀리즘' 출시 예정('23.下)

□ **(기업에 대한 인센티브)**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, 정부 포상 등 지원 확대

- 원료매입자금 금리 인하($\Delta 1.0\%$ p), 국산 원료를 사용한 신제품 개발 지원 확대(업체당 20백만원 → 40), 식품 R&D 참여시 가점 부여('23~)

-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, 기업의 국산 원료 구매실적 평가 강화

- 정부 포상, 상생협력 사례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

* '대한민국 식품대전'(매년 11월)에서 'Agro-Biz 동반성장 우수기업'으로 선정, 포상

5

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

◆ 변화된 환경에 대한 식품기업의 대응능력 강화

* 식품기업 ESG 경영 도입(코스피 상장사 기준) : ('22) 12개사 → ('27) 전체(36개사)

5-1. 식품·외식 기업의 경영 안전망 확충

□ (인력)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및 新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, 생산인력 지원 등을 통한 식품·외식업계 인력난 해소

○ (외국인력)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국인력 규제 완화,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외식 인력 수급 동향 및 외국인력 필요 분야 발굴 등 추진('23~)

- 중소(50인 미만)·비수도권 식품제조업체의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각각 20% 상향(중복 가능), 총 고용 허용 인원 내 신규 고용 허가 한도 폐지

내국인 피보험자 수	총 고용 허용 인원			신규 고용 허가 한도	
	현행	중소 or 비수도권	중소+비수도권	종전	개선
1~10인	9명	10명	12명	4명	폐지
11~50인	15명	18명	21명	5명	
51~100인	17명	20명	23명	6명	

- 방문취업 외국인(H-2)의 취업 허용업종을 '음식점 및 주점업' 전체로 확대하고, 재외동포(F-4)의 음식점업 취업제한 해제

- 외국인 유학생(D-2)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연장* 검토(법무부 협조)

* 학사·전문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(최대 25시간 → 30)

○ (전문인력)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계약학과, 그린바이오 특수대학원('24~)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

- 대학 벤처연구팀('22: 3개 → '27: 9) 지원 확대로 식품분야 창업 활성화

< 사례 :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기업 기술애로 해소 >

- ▶ '20년부터 식품기업 재직자 대상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중
 - * ('20) 2개교, 40명 → ('21) 4개교 75명 → ('22) 4개교 78명
- ▶ 서울대는 (주)네오크레마에서 생산 중인 '비건육포'의 맛 개선을 위해 식물성 조직단백(TVP)과 첨가물의 최적 배합비 및 제조공정을 개선하여 단백질 함량은 높고 나트륨 함량은 낮춘 신제품 개발 지원



- (생산인력) 식품·외식기업에 청년 인턴 채용 비용 일부를 지원, 식품산업에 청년 고용 확대 기반 구축

* '22년 57개 기업에 청년 인턴 303명 지원, 이 중 총 289명(95.4%) 이 정규직으로 채용

□ (경영지원) 식품·외식기업에 대한 자금·원재료·R&D 지원 강화

- (자금) 원료매입·시설현대화 자금 융자 지원 확대('23, 1,446억원)

- 지역 상인회 등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('23, 1.5억원), 외식업체에 지역 농산물 구매 지원('23, 3.2억원) 병행 추진

- (원재료) 원재료 수급 불안에 대응, 해외농업 개발과의 연계 강화, 할당관세 적용('23.5 기준, 33개 품목), 계약재배 등 지원 확대

- 「해외농업산림법」 개정을 통해 해외 농업 개발 추진시, 식품 원료 조달 목적의 해외 진출 허용('25~)

* (현행) 개발 대상자원이 농산물(바이오에너지 원료 포함)·축산물로 제한 → (확대) 농산물 가공품 및 식품으로 확대(예 : 식용유, 대두박 등)

- (R&D)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신식품 산업 육성, 식품 소재 국산화, 품질·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R&D 지원 강화('23, 380억원)

< 사례 : '더플랜잇'의 식물성 유제품 XILK(셀크) >

- ▶ '19~'21년 동안 총 7억원의 식품 R&D 사업을 지원받아 신제품 콩(하영콩*)을 활용한 새로운 단백질 추출·배합 기술을 개발하여 '식물성 우유' 출시('22년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선정)

* 콩의 비린맛과 알레르기, 소화불량 물질을 제거한 신제품



5-2.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

- **(국내기반 조성)** 식품기업의 ESG 공시 의무('21~, 금융위)* 대응을 위해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, 교육·홍보 등 지원
 - 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(G) : ('19) 자산 2조원 이상(식품기업 11개사) → ('22) 1조원(17개사) → ('24) 5,000억원(22개사) → ('26) 모든 상장사(36개사)
 - ② 지속가능경영보고서(E·S·G) : (~'24) 자율 → ('25) 자산 2조원 ↑(11개사) → ('30) 모든 상장사
 - **(실태조사)** 식품기업의 ESG 경영 현황, 취약 분야 등 조사('23~)
 - 기업별 자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**체크리스트*** 개발·제공
 - * 우선,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, 향후 식품 분야 자가진단시스템 개발
 - **(가이드라인)** ESG 경영 공시 자료 작성 방법, 중소기업 협력사 관리 매뉴얼,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한 '**ESG 경영 가이드라인**' 마련('24, 산업부 협조)
 - '**식품기업 ESG 포럼**(식품산업협회 주관)'을 운영하여 ESG와 관련한 기업의 정책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, ESG 경영 우수사례를 공유
 - * **ESG 관련 정책지원 필요부문 조사 결과(대한상의, '23.1월)** : ①ESG 가이드라인 제공(39.3%), ②진단·실사컨설팅(28.0%), ③세제지원(24.0%), ④전문인력 양성(20.7%), ⑤금융지원(20.7%) 順
 - **(교육·홍보)** 중소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 교육 추진 검토('24~)
-
- **(글로벌 대응)** EU 공급망 실사법 등에 대한 식품기업의 대응력 강화
 - **(컨설팅)**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수출기업 및 협력사를 중심으로 **ESG 경영 컨설팅 지원**('23~, 산업부 협조)
 - ESG 컨설팅이 가능한 국내외 전문가 풀(Pool)을 구성하여 기업에 제공
 - **(탄소 감축 연구)** 식품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**탄소 감축 방법론 개발, 기술 실증, 기업 활용 교육 등 지원**('24~)

5-3.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확대

□ **(문화기능)**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'식품 복합 문화단지'로 육성

○ 식품 문화 체험시설* 조성으로 미래 세대에 식품 교육·체험 기회를 제공,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 제고

* 미래식당 체험관, 스마트팩토리, VR 체험관, 식품 테마 놀이공간 등

○ 입주기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, 홍보 등 강화

□ **(거점기능)** 전국 산업단지 소재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

○ 지역 대학·연구소 등을 산업단지(1,257개)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하는 '현장지원센터'로 지정, 기업 애로 해결('23~)

○ '현장지원센터'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온·오프라인 지원 기능*을 기업에 연결('23~)



*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(12개소) 활용,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을 통한 정보제공 등

< 사례 : '강원' 지역 '현장지원센터' 운영 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지원센터: 흥천메디칼허브연구소) 지역 대학·기업 등과 협의회 구성·운영, 기업 애로 과제 해결 ▶ (협업기관: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, 한림대학교 등) 기업 애로과제 협업, 시제품 제작·품질 검사, 인력양성 지원 ▶ (수요기관: 기업) 신제품 생산·판매, 일자리 창출 	
---	--

□ **(발전방안 수립)** 식품기업 및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등에 대해 연구하여 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 수립('23)

5-4. 식품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

◆ 식품 안전관리 강화, 정보제공 확대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 산업으로 성장

□ (안전 관리) 생산단계별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

- (농산물) 농약 잔류 허용기준 부적합 품목 관리 강화('23~)
 -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시·군 중심으로 농약 오남용 우려가 큰 품목 및 작목반 대상 농약 안전관리 교육 집중 추진
- (축산물) 축산물 PLS 도입('24), 도축·집유 단계 온도, 세척 등 위생·안전 모니터링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HACCP 도입 추진('24~)
- (가공식품) 스마트 HACCP·GMP* 등 스마트 제조 안전 관리 지원 강화,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'식품기업 안전 경영 비전 선포식' 개최('23~)
 - * 건강기능식품 생산 순 과정의 위해요소 및 원료·성분·함량 등 제품 품질 검증

□ (소통 강화)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등 추진

- '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('23~, 12개 단체)'를 통해 식품 정책에 대한 소비자단체 참여 활성화
 -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식품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, 농식품 소비실태, 푸드테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등 추진
- 식품 원재료·영양·조리법·생산이력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QR 코드 도입 활성화로 소비자에게 상세 정보제공('23~, 식약처 협조)

< 사례 : 식품 정보 QR코드로 제공 >

- ▶ 식품 표시사항(영양성분·원재료 등), 조리법, 생산이력정보 등 제조~판매까지 단계별 상세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제공
- ▶ 현재 6개社 13개 제품*에 '스마트 QR' 도입 중
 - * (농심) 컵라면 2종, (매일유업) 조제분유 3종, (대상) 장류 2종 등
- ▶ 식품기업은 포장재 표시 간소화로 원재료 변경 등에 따른 포장재 교체 부담↓



VI. 추진체계

□ (거버넌스) 산·학·관 기능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식품산업 진흥

○ 식품 관련 유관기관 간 전문 역량의 연계·결합에 집중

< 분야별 산·학·관 협력체계 >

<p>푸드테크· 그린바이오</p>	<p>▶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(‘23.2),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(‘23.3), 각 협의회 별 분과위원회* (푸드테크 6개, 그린바이오 6개) 구성.운영 중 * (푸드테크) 총괄, 대체식품, 맞춤형·특수식품, 간편식, 생산공정기술, 외식서비스 (그린바이오) 증자, 동물용의약품, 미생물, 곤충, 천연물, 식품소재</p>																		
<p>수출</p>	<p>▶ K-Food+ 수출 확대 추진본부 및 분과위원회*(5개) 구성.운영 중(‘23.1) * 농식품, 스마트팜, 농기자재, 동물용의약품, 해외농업기반시설</p>																		
<p>한식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 padding: 5px;"> <p>‘국내’ 한식 진흥 : K-미식벨트 조성 등 한식진흥원, 지자체</p> 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+</td> <td style="width: 33%; padding: 5px;"> <p>‘해외’ 한식 진흥 : 우수 한식당 지정, 한식 소스 개발 한식진흥원, 국가식품클러스터</p> 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→</td> <td style="width: 24%; padding: 5px;"> <p>식재료 수출 aT, 한식당협의체, 한식진흥원</p> </td> </tr> </table>	<p>‘국내’ 한식 진흥 : K-미식벨트 조성 등 한식진흥원, 지자체</p>	+	<p>‘해외’ 한식 진흥 : 우수 한식당 지정, 한식 소스 개발 한식진흥원, 국가식품클러스터</p>	→	<p>식재료 수출 aT, 한식당협의체, 한식진흥원</p>													
<p>‘국내’ 한식 진흥 : K-미식벨트 조성 등 한식진흥원, 지자체</p>	+	<p>‘해외’ 한식 진흥 : 우수 한식당 지정, 한식 소스 개발 한식진흥원, 국가식품클러스터</p>	→	<p>식재료 수출 aT, 한식당협의체, 한식진흥원</p>															
<p>외식</p>	<p>▶ ‘외식산업 발전포럼’ 중심으로 외식산업 혁신 방안 추진 * 외식경영연구원, 외식산업협회, 프랜차이즈산업협회, 학계, 기업 등</p>																		
<p>농업 연계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 padding: 5px;"> <p>기업 원료 수요 DB 식품산업협회</p> 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+</td> <td style="width: 33%; padding: 5px;"> <p>농가 원료 공급 DB 농협, 지자체, 품목단체</p> 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→</td> <td style="width: 24%; padding: 5px;"> <p>매칭·우수사례 발굴 aT</p> </td> </tr> </table>	<p>기업 원료 수요 DB 식품산업협회</p>	+	<p>농가 원료 공급 DB 농협, 지자체, 품목단체</p>	→	<p>매칭·우수사례 발굴 aT</p>													
<p>기업 원료 수요 DB 식품산업협회</p>	+	<p>농가 원료 공급 DB 농협, 지자체, 품목단체</p>	→	<p>매칭·우수사례 발굴 aT</p>															
<p>전통식품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 padding: 5px;">김치</td> <td style="width: 35%; padding: 5px;"> <p>생산 고도화 : 종균개발, 생산공정 자동화 세계김치연구소</p> 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→</td> <td style="width: 25%; padding: 5px;"> <p>소비기반 확대 김치협회, 소비자단체</p> 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→</td> <td style="width: 15%; padding: 5px;"> <p>수출 확대 aT, 한식진흥원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전통주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p>산업 육성 : 창업 R&D, 교육 등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가양주연구소</p>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p>국내 소비기반 확대 전통주 갤러리, 지자체</p>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p>수출 확대 aT, 한식진흥원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장류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p>산업 육성 : 종균개발 및 보급, 소스산업 연계 등 발효미생물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</p>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p>문화 가치 확산 한식진흥원, 지자체</p>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p>수출 확대 aT</p> </td> </tr> </table>	김치	<p>생산 고도화 : 종균개발, 생산공정 자동화 세계김치연구소</p>	→	<p>소비기반 확대 김치협회, 소비자단체</p>	→	<p>수출 확대 aT, 한식진흥원</p>	전통주	<p>산업 육성 : 창업 R&D, 교육 등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가양주연구소</p>	→	<p>국내 소비기반 확대 전통주 갤러리, 지자체</p>	→	<p>수출 확대 aT, 한식진흥원</p>	장류	<p>산업 육성 : 종균개발 및 보급, 소스산업 연계 등 발효미생물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</p>	→	<p>문화 가치 확산 한식진흥원, 지자체</p>	→	<p>수출 확대 aT</p>
김치	<p>생산 고도화 : 종균개발, 생산공정 자동화 세계김치연구소</p>	→	<p>소비기반 확대 김치협회, 소비자단체</p>	→	<p>수출 확대 aT, 한식진흥원</p>														
전통주	<p>산업 육성 : 창업 R&D, 교육 등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가양주연구소</p>	→	<p>국내 소비기반 확대 전통주 갤러리, 지자체</p>	→	<p>수출 확대 aT, 한식진흥원</p>														
장류	<p>산업 육성 : 종균개발 및 보급, 소스산업 연계 등 발효미생물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</p>	→	<p>문화 가치 확산 한식진흥원, 지자체</p>	→	<p>수출 확대 aT</p>					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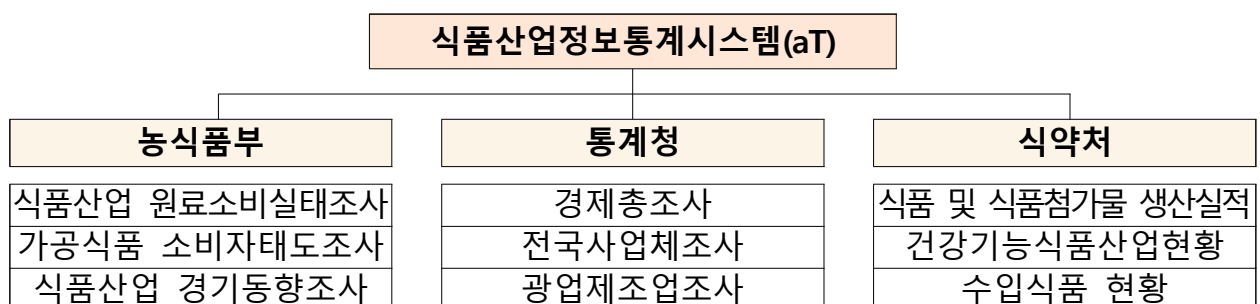
□ **(법·제도)**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법·제도 기반 마련

- 미래 유망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「푸드테크 산업 육성법」, 「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」 제정('23)
- 식물성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, 세포배양식품 안전성 평가 기준 신설 등 **新식품 관련 제도 정비**(‘23~, 식약처 협조)

□ **(통계기반)** 식품산업 관련 통계생산 및 정보제공 체계를 정비하여 정책 수립 및 기업 경영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

- **(통계생산)**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**新산업 분야 통계 신규 구축**, 기존 통계분류체계 정비, 시장 트렌드 조사 수시 추진 등(‘23~)
 - **(신규통계 구축)** 푸드테크,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
 - * 조사대상(모집단), 표본추출, 분류체계, 조사항목·방법 등을 구성, 통계청에 지정 신청
 - **(통계분류체계 정비)**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**식품산업 분류체계를 통일**하여 통계 활용도 제고
 - * 통계청 '한국표준산업분류'는 식품산업을 55개로 분류하는 반면, 식약처 '식품공전'은 식품산업을 246개로 구분하고 있어 통계 간 비교·분석에 한계
 - **(트렌드 조사)** 식품업계 수요 등을 바탕으로 품목별 **시장 트렌드를 수시로 조사**하여 식품기업 경영에 유용한 정보제공
- **(정보제공)** 식품 관련 통계*를 식품기업 및 연구기관의 이용 편의를 위해 가공하여 **식품산업정보통계시스템(FIS)**을 통해 통합 제공(‘24~)
 - * 식품 관련 국가승인통계 보유 현황: (농식품부) 8종, (통계청) 15종, (식약처) 6종

< **식품 관련 주요 통계 통합 제공 체계(안)** >



연번	추진과제	주관 [협조]	일정
----	------	------------	----

1.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

(1) 지역~세계로 푸드테크 산업 확산

①	'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' 지정·육성	농식품부 (지자체)	'24~
②	'K-푸드테크 글로벌센터' 설치 등 해외 진출 지원	농식품부 (aT, 중진공)	'24~
③	자금, R&D, 판로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추진	농식품부 (농금융원, 농진원)	'23~

(2) 그린바이오 기술의 식품 분야 적용 확대

①	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	농식품부 (식품진흥원)	'23~
②	고령친화식품 등 개발 지원	농식품부	'23~
③	기능성식품 등 분야별 육성방안 수립	농식품부	'23~

2. K-Food의 경쟁력 강화

(1) K-Food 수출 확대

①	수출 유망품목·품종 발굴·육성	농식품부 (aT)	'23~
②	국내외 저온 물류·유통체계 구축	농식품부 (aT)	'23~
③	최우선 전략국 선정, 현지 바이어 발굴 등 신규시장 개척	농식품부 (aT)	'23~
④	수출기업 대상 자금지원 확대	농식품부 (aT)	'23~

(2) 국내 미식관광 활성화 및 한식 홍보 강화

①	국내 K-미식벨트 조성	농식품부 (한식진흥원)	'23~
②	해외 우수한식당 지정 확대 및 국산 식재료 공급망 구축	농식품부 (한식진흥원, aT)	'23~
③	스타셰프 발굴·육성 및 글로벌 미식행사 유치	농식품부	'23~
④	「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」 수립	농식품부	'23

(3) 외식서비스 품질 제고			
①	외식 서비스 등급제 도입 및 푸드테크 적용	농식품부	'23~
②	외식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	농식품부 (aT)	'23~

3.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

(1)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중주국 위상 제고			
①	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 및 배추·무 우수 품종 개발	농식품부 (농진청)	'23~
②	김치 생산 자동화 공정 도입	농식품부 (김치연)	'23~
③	김치 종균 개발 및 보급 확대	농식품부 (김치연)	'23~
④	수출국 맞춤형 김치 제품 및 장기 유통기술 개발	농식품부 (김치연, aT)	'23~
⑤	미래 세대 교육·체험 기회 확대	농식품부 (김치협회)	'23~
⑥	김치 품질·위생 제고 위한 제도 개선	농식품부 (식약처)	'23~

(2) 전통주 산업 도약 기반 조성			
①	명주 개발을 위한 자금·교육·R&D·판로 지원 등 추진	농식품부 (aT, 한식연)	'23~
②	'전통주 등'을 지역 문화 관광상품으로 육성	농식품부 (지자체)	'23~
③	프리미엄화, 한식과의 연계를 통한 전통주 수출 확대	농식품부 (한식진흥원, aT)	'23~
④	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「전통주육성법」 개정 검토	농식품부	'23~

(3) 전통 장류를 소스 산업으로 육성			
①	우수 종균 개발·보급	농식품부 (지자체)	'23~
②	전통 장류 활용 소스 개발·시제품 생산	농식품부 (식품진흥원)	'23~
③	식품명인 계승·발전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	농식품부 (한식진흥원)	'23~

4.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

(1) 농업-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			
①	식품기업-농가 간 계약재배 위한 '원료중계 플랫폼' 구축	농식품부 (aT, 식품산업협회)	'23~
②	식품 원료 생산단지 조성 확대 및 DB 구축	농식품부 (농진청, 식품진흥원)	'24~
③	식품 소재·반가공 산업 활성화	농식품부	'23~

(2) 국산 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			
①	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	농식품부	'23~

5.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

(1) 식품·외식 기업의 경영 안전망 확충			
①	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및 전문인력·생산인력 지원	농식품부 고용부, 법무부	'23~
②	자금·원재료·R&D 등 경영지원 강화	농식품부, 기재부	'25~

(2)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			
①	식품기업 'ESG 경영 가이드라인' 마련	농식품부 산업부 (식품산업협회)	'24
②	식품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	농식품부 산업부 (식품산업협회)	'23~

(3) 국가식품클러스터를 '식품 복합 문화단지'로 육성			
①	식품 복합 문화단지 육성	농식품부 (식품진흥원)	'24~
②	전국 산업단지 소재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	농식품부 (식품진흥원)	'23~
③	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 수립	농식품부	'25~

(4)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			
①	생산단계별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	농식품부, 식약처	'23~
②	식품 관련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	농식품부, 식약처	'23~

6. 추진체계 구축

①	산·학·관 기능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	농식품부	'23~
②	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법·제도 기반 마련	농식품부, 식약처	'23~
③	식품산업 통계 기반 구축	농식품부, 통계청, 식약처	'23~